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우 진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태 성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우 진

정우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이성훈



부 위 원 장

하정하



위 원

김태성



# 국문초록

##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우 진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수명연장으로 이른바 세대간의 관계수명(relationship life expectancy)이 늘어난” 현시점에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오랜 기간을 가족 및 이웃들과 접촉하며 생활하게 될 노인(한경혜·홍진국, 2000)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숙고해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고령자가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신체적, 인지적 건강상태가 모두 양호한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변인 및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내 지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에 주목하여 가족내 지지의 상호제공적 제공주체를 배우자와 자녀로 구분하고, 가족내 지지를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와 돌봄제공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외 지지는 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와 간병인의 돌봄제공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 제3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해서 위계적 회귀모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해 자녀와의 동거여부 및 인지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선정한 후 성별, 연령집단 및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를 독립변수로 넣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퇴고령자의 경우 여성일 경우, 연소노인일 경우, 자녀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지가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있을 경우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돌봄제공받은 주당평균시간이 증가되거나 간병인으로부터 돌봄제공받은 주당평균시간이 증가될수록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하락한다고 밝혀졌다.

둘째,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를 상호작용항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 및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일 때보다 일반층일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의 수준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다고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 저소득층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낮은 반면, 일반층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로부터 적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

우보다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에 저소득층과 일반층 모두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층에 있어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액수가 중요하기는 하나 저소득층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보다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은퇴고령자에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은퇴 후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고 조화롭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 은퇴고령자를 위한 부부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관,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도 일반 은퇴고령자처럼 금전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 못지않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공공근로나, 학교돌보미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당하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가족내 돌봄제공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병인이나 생활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넷째, 은퇴고령자에게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 평균횟수는 주관적 삶

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고령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마다 적정수준의 놀이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다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여자가 남자보다, 연소노인 집단이 중고령 노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자와 중고령노인에 속하는 은퇴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는 첫 번째 자녀의 주당 연락빈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는 것보다 연락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 결과는 은퇴고령자 자녀에게 은퇴 후 부모와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고려된다. 자녀가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접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이 적은 잦은 전화연락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은퇴고령자와 성인자녀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곱째,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부양문제는 가족내에서 자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 가정 내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은퇴고령자의 심리적 복지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를 통해서 한 가정 내에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활동은 은퇴고령자와 자녀의 상호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은퇴고령자가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퇴고령자의 분거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주요어** :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 은퇴고령자, 주관적 삶의 질,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 돌봄제공

**학 번** : 2012 - 20128



# 목 차

<b>제 1 장 서 론</b> .....	<b>1</b>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
제 2절. 연구문제 .....	9
<b>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b> .....	<b>10</b>
제 1절. 이론적 배경 .....	10
1. 사회교환이론 .....	10
2. 사회정서적 선택이론 .....	12
3. 성별화된 연령주의이론 .....	14
4. 경제수준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이론 ..	15
제 2절. 선행연구 .....	17
1. 가족내 지지 .....	17
2. 가족외 지지 .....	22
3. 주관적 삶의 질 .....	24
제 3절. 연구가설 .....	31
<b>제 3 장 연구방법</b> .....	<b>34</b>
제 1절. 연구자료 .....	34
제 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35
1. 종속변수 .....	35
2. 독립변수 .....	36
3. 통제변수 .....	38

제 3절. 자료분석방법 .....	43
<b>제 4 장 분석결과 .....</b>	<b>48</b>
제 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48
1. 독립변수의 특성 .....	48
2. 종속변수의 특성 .....	52
3. 통제변수의 특성 .....	52
제 2절. 주요분석결과 .....	54
1. 연구문제1: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지, 금전 적 지지, 돌봄제공)및 가족외 지지(친구의 심 리사회적 지지, 간병인의 돌봄제공)가 은퇴고 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	54
2. 연구문제2: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수준의 조절효과 .....	62
<b>제 5 장 결론 .....</b>	<b>74</b>
제 1절.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	74
제 2절. 연구의 함의 .....	83
1. 이론적 함의 .....	83
2. 정책적 함의 .....	84
제 3절.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의 의의 .....	87

## 표 목 차

[표 1-1] 변수의 종류 및 측정방법 .....	40
[표 2-1] 독립변수의 특성 .....	50
[표 2-2] 종속변수의 특성 .....	52
[표 2-3] 통제변수의 특성 .....	53
[표 3-1]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분석 .....	56
[표 3-2] 변수간 Pearson 상관관계 분석 .....	57
[표 3-3]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 및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 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60
[표 4-1] 연령집단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분석 결과 .....	63
[표 4-2]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분석 결과 .....	65
[표 4-3]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 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분석 결과 .....	68

[표 4-4]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분석 결과 .....	72
[표 5] 분석결과에 따른 가설검정 요약 .....	82

## 그 림 목 차

<그림 1> 개인의 생애과정 중 대인관계지향의 내적 원인 ..	13
<그림 2> 주효과 연구모형 .....	32
<그림 3> 조절효과 연구모형 .....	33
<그림 4-1> 성별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 .....	67
<그림 4-2>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 .....	70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고도의 압축적 근대화과정을 겪었고 이에 따라 인구구조 또한 압축적 고령화(compressed aging)로 나타나고 있다(공선희, 2008). 60살까지만 살아도 장수라고 불리우던 과거사회와는 달리 “70, 80세까지의 장수가 흔한 상황으로 바뀜에 따라 노년기가 대폭 연장된”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은퇴고령자들이 피부양자화되었고, 이는 곧 노인부양이라는 문제와도 결부되게 된다(장경섭, 1992). 은퇴고령자의 삶의 질은 노인개 개인의 복지와 직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독거노인가구 및 노인단독가구를 이루고 사는 경우 심리적 복지감도 낮고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윤순덕·한경혜, 2000).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전통적인 해결방안이었지만, 사회내의 가치관변화 및 자녀세대의 독립적인 성향 증가로 인해서 노인단독가구가 많아지게 된 현 상황에서는 노인들이 독립적인 가구로 생활을 하더라도 건강한 일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지원체계 중 하나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대시키는 방안(고보선, 2004)이 필요하다.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크게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박성복, 2004). 객관적 삶의 질이란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경험적 측면 내지 보편적 설명이 가능한 객관적·분석적 차원의 자원”이라고 하며, “주거상태, 건강상태, 노후대비, 개인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배우자 생존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삶의 질이란 “삶에 대한 충만감, 주체감, 자율감, 성장감 등 내면의 가치 있는 주관적 체험들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실존적 만족”이라고 하며, “주어진 생활환경 속에서 체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풍요로움, 가치 있는 활동에 종사한다는 감정”등이 포함된다. Fritz, Michael and Schwarz(1991)은 주관적 삶의 질이란 개인이 여태까지 여러 유형의 지지를 받아왔던 사회적 지지의 총량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스스로 회고하며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환경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객관적 삶의 질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오히려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이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측정보다 노인의 삶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노인에게 있어서 주관적 삶의 질이란 “객관적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한석태, 2008).

한편, Erikson(1982)은 노년기가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로서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의 발달과업”에 직면한다고 규정했다. 은퇴 이후의 노년기에 충분히 사랑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일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절망감(despair)이 형성된다는 것으로, 노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인생경험 중 상당수는 “관계단절로 인한 지속된 침체감”이 원인인 것이 많기 때문에 친밀감을 계속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은퇴이후의 성공적 노화과정인 ‘자아통합감을 느끼는 노년기’를 이뤄낼 수가 있다고 한다. 은퇴고령자는 대체로 퇴직과 더불어 직장 내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쉬우며 수입의 감소 등에 따른 고립감과 우울감 등을 겪게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또한 은퇴를 경험한 노인의 경우 “은퇴로 인한 역할전환, 경제적 상황의 변화, 기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장수미, 2008), 은퇴고령자에 대한 가족내 지지나 가족외 지지는 노년기에 누구나 당면하는 취약성의 상태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뿐만 아니라 누구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며, 건강악화시 신체적, 의료적 보살핌을 어떻게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남궁명희, 2009). 특히 자녀들과의 분거를 경험하는 노인들의 경우 “분거를 위한 심리적 적응과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서 불안정한 생활을 경험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장경섭, 1992). 이러한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꼭 필요한 자원이며, 가족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부인에 의해 제공되는 가족외지지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가족내 지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은퇴고령자의 경우 공적인 지원체계보다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지지감 및 돌봄제공과 같은 유형의 도움이 “은퇴와 같은 부정적 인생사건 들로부터 오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4). 은퇴고령자의 경제적 수준이 중류층 이상인 경우에도 가족으로부터 받던 정서적 지원 및 돌봄제공이 중단될 경우에는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공적지원망이 대체할 수 없는 가족내의 고유한 유형의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Dane, 1990). 가족내 지지를 받는 노인이 가족내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인에 비해서 지각된 노년기 삶의 질과 정신건강이 더 양호하다는 연구(Thompson and Kenneth, 1990)나 가족내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최은영·김지영·김혜숙, 2003) 등은 가족내 지지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가족내 지지의 유형으로는 심리사회적 지지와 돌봄제공의 두 측면으로 크게 구분되어 왔는데(Walker, Pratt, and Oppy, 1992), Krause(2006)는 가족내에서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년기 부모에게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망이 되어주며, 건강상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주로 심리사회적 지지만 분석한 경향이 있으며, 돌봄노동 및 돌봄제공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이면서 정책적으로 구

성된 현상으로서의 돌봄을 분석한 연구(Jeanette and liz, 2002)와 소수가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금전적, 물질적 지지도 포함하여 가족내 지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Couch, Daly, and Wolf(1999)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부모에게 심리사회적 지지횟수가 많은 자녀일수록 노년기 부모에게 주는 금전적 지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ime for money'이라는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적고 돈을 적게 버는 자녀일수록 금전적 지지대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서 심리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외에도 가족내 지지가 노인의 건강과 자아통합감에 주는 매개효과를 본 연구(이미란, 2011)와 가족내 지지 중 감정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노인의 무망감 완화에 주는 영향을 본 연구(김순안, 2012)결과 들에서도 가족내지지의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가족내에서 지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의 변화는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인이 지지를 받는 입장에서만 보고되었을 뿐 지지를 제공하는 입장이나, 상호제공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이 많지 않다. 은퇴고령자들은 자녀 및 배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족내 지지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내 지지를 주는 것 또한 가능한데, 노인이 가족 지지를 제공받는 행동과 노인이 가족내 지지를 제공하는 행동 모두 노년층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Reker. 2001, 김귀분·최재은·석소현, 2007). Fritzell&Lennartsson(2005)은 스웨덴의 가족 안에서의 세대간 금전적 지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주로 60~80대의 노년층 세대가 손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수행한 노년층 세대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금전적 지지의 액수 및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 광주광역시 거주노인의 경우 노인의 96% 이상이 1·2차 비공식적 관계망에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



고, 80% 이상의 노인은 비동거 자녀, 친척, 친구·이웃의 모든 관계망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민기채·이정화,2008). 이러한 사실은 노인들이 자녀나 친척과 같은 관계망에서 지지를 제공받기만 하는 행동을 넘어서 지지를 제공하는 제공 주체로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내 지지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주체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에 따라서도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Chappell, 1985)에 주목하여 가족내 지지의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모두를 자녀와 배우자로 나누어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은퇴고령자가 가족내 지지를 제공받는 것과 제공하는 행위 중 어떤 것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것이 많지 않다. 또한, 가족내 지지라 하더라도 금전적 지지(원경혜, 2013; 조윤주, 2007; Fritzell&Lennartsson, 2005), 또는 물질적 지지(Truong, Bui and Knodel, 1997)나 심리사회적 지지(George et al, 1988) 등 어느 한 유형이나 두 유형에 관해 보고되었을 뿐 손자녀 양육이나 돌봄 제공의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가족내 지지의 영역을 넓히고, 자녀와 배우자로 구분하여 상호제공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가족외 지지에 관해 살펴보면, “노년기는 사적관계망 자체가 점점 축소되는 시기이며, 관계망 내의 중심집단(core group)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고, 한국사회의 은퇴고령자의 경우에는 노년기의 은퇴고령자에 대해서 별다른 지원이나 도움 없이 이들을 내버려둘 경우 이는 곧 “사적 지원체계의 과부담 현상으로 나타나며, 지원 수혜자로서의 노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원 제공자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한경혜, 1994)고 보겠다. 은퇴고령자에 대한 가족외 지지로는 친한 친구와의 교류(Barker, 2002)나 노인의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간병인의 지지(Branch and Jette, 1983)

가 존재한다. 이러한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Wentowski, 1981; Greg, 1987; Georg and alfred, 1993). 한국과 일본노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일본노인들의 경우 사회적지지가 많아질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낮아지는 반면 한국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아름·정홍주, 2013).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라는 문화권내에서의 노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는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모두 중요한 요소임을 추측케 한다. 이렇듯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 모두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라 볼 수 있으나,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성별과 연령은 은퇴고령자의 기본적 개인적 특성으로 이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다. Neugarten(1974)은 주관적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난다고 보고했는데, 55세부터 75세까지의 연소노인(young-old) 집단에 속한 노인이 76세 이상의 중고령노인(old-old) 집단에 속한 노인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며 일상생활에서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 훨씬 더 낮고, 빈곤을 경험하는 수준도 더 적은 편이라 주관적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 요인을 통제해서 살펴본 경우, 연령보다는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내의 환경요인이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주된 영향력을 미치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Deleaire, 1994)도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가구안의 은퇴고령자가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본 연구(Peterson, 1995)도 존재하는가 하면, 성별차이가 아닌 은퇴고령자가 일상생활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들과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족들

의 노력의 차이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본 연구(Gubrium, 1991)도 있다. 이렇듯 성별(Toni and Hiroko, 1987)과 연령(Matt and Dean, 1993; Thomas et al, 1999)에 따라 은퇴고령자의 주관적인 삶의 질이 차이가 나는가의 문제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한석태(2008)는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 등의 삶의 객관적 조건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는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삶의 질 간에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정한 경제적 수준을 성취한 후에는 자기효능감이나 건강 자부심과 같은 주관적 변수들이 객관적 변수보다 삶의 질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최하위일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및 주거상태'와 같은 경제적 자원의 많고 적음이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건강자부심 및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안정감,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Diener et al(1985), Diener et al(1999)에 의하면 경제적 조건이나 생활조건과 같은 삶의 객관적인 지표들과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일 경우 항상 동등하게 비례해가면서 일치하지만, 일정 경제적 수준이 넘어설 경우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관계요인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고령자의 경우 연령집단 및 성별(Campbell et al, 1981)에서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와 중류층이상의 일반 은퇴고령자라는 경제수준(economic status)가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에 조절요인으로서 나타났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변인들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에 있어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 역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서(한석태, 2008; 김영근, 2008), 일상생활에서 심신의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 매우 나빠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의 경우 다른 어떤 변수보다 건강상태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지나치게 열악한 은퇴고령자의 경우 이 변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회적 지지변인의 영향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어느 정도의 건강수준을 유지하는 일반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한 남성노인의 경우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심리적 행복감을 높임으로서 주관적 삶의 질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므로(유성호, 1997), ‘자녀와의 동거여부’라는 변수 역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인지적 건강상태가 모두 양호한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변인 및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내 지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에 주목하여 가족내 지지의 상호제공적 제공주체를 배우자와 자녀로 구분하고, 가족내 지지를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와 돌봄제공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수명연장으로 이른바 세대간의 관계수명(relationship life expectancy)이 늘어난” 현시점에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오랜 기간을 가족 및 이웃들과 접촉하며 생활하게 될 노인(한경혜·홍진국, 2000)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숙고해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라 생각

된다. 따라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배우자와 자녀의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 돌봄제공) 및 가족외 지지(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 간병인의 돌봄제공)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지, 금전적 지지, 돌봄제공) 및 가족외 지지(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 간병인의 돌봄제공)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1절. 이론적 배경

#### 1.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은 초창기에는 경제학적 원칙에 입각하여 개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최대화되고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적 교환 차원에서 호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었으나, Dowd(1975)가 가정 내에서 노년층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적 지지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론적 기초로 제시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 돌봄제공을 받는 대상인 노년층이 일방적인 수혜자라기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가족내 지지라는 도움 또한 제공할 수 있는 상호적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Wilmsem(1972)은 상호제공적 지지라는 사회교환적인 행위는 기원전 몇 백 년 전부터 이루어왔다고 하며, 과거부터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주는 대상을 만나서 그 대상과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물품이나 금전 및 심리사회적 지지를 호혜적인 선물(reciprocal gift)로서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개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유익한 사회적 지지를 가족내에서 얻기 위해 연장자들이나 친척들을 찾아서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제공해주거나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상황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가부장제 문화가 존재했던 사회 내에서도 노인들은 성인자녀들에게 돌봄이나 금전적 지지를 일방적으로 제공받기보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지지를 제공하는 성인자녀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효도(Filial piety)라 칭찬하거나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기꺼이 돕는 등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수행하면서 상호제공적인 세대간 지지(reciprocal intergenerational support)를 수행하는 현상이 보편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세대간 지지가 상호제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이 유익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다는 긍정적 감정을 얻기 위해서(Ik ki and cheong-seok,2003), 또는 상호간에 주고받을 경우 자신의 의무를 유기하지 않고 자신 또한 도움을 주었다는 도덕적 당위감을 고취시키기 때문(McCulloch,1990)이라고 한다. 또 ‘과도한 수혜’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노인들은 스스로가 ‘의존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내서 주관적 안녕감을 해치기 때문에(Lowenstein, Katz and Gur-Yasih, 2007) 자녀들의 돌봄제공이나 심리사회적 지지를 일방적으로 받기보다는 노년기 부모도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상호제공적 지지가 일어나는 이유를 성인자녀 측면에서 분석하기도 하는데, 성인자녀의 경우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근로와 육아를 병행하기보다는 노년층 부모에게 그들의 손자녀를 돌봐주는 돌봄을 제공받거나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음으로서 그들의 ‘자녀양육비용’과 ‘근로스트레스’를 경감 받는 것이 더 경제적·심리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년층 부모와 상호제공적으로 지지를 주고받는다(Cardia and Ng, 2003)고 한다. 또, 노년층 부모와 상호제공적 지지를 수행하는 데에는 노부모를 열심히 모시려는 성인자녀의 순수한 ‘이타적 동기’와 함께 노부모가 준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신의 금전적·심리 사회적 지원이라는 ‘교환 동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기도(Stark and Falk, 1998) 한다. 그리고 성인 자녀가 자신에게 존재하는 자원을 부모에게 제공하고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 또한 성인자녀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상호제공적 지지가 일어난다고 분석한 경우(Walker, Pratt and Oppy, 1992)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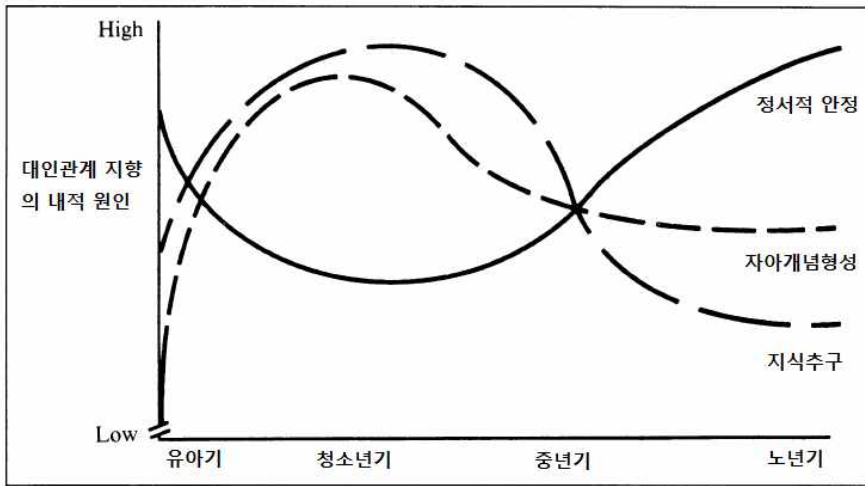
지지, 돌봄제공)의 관점에서 가족내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사회교환이론의 가정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 2. 사회정서적 선택이론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은 사람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그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시간에 대한 평가가 개인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넉넉하다고 느낄 때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하며 정서적인 가치보다는 지식과 관련된 목적을 추구하지만, 개인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낄 때에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하고만 가까운 관계를 두는 등 제한된 사회적 관계만을 탐색한다고 한다.

개인이 경험하는 생애주기과정 중 생애의 후반기인 노년기에 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면, 이 때에 사람들은 가족 등 가까운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중요시하게 된다(Carstensen, 1999). 특히, 노년기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로 묶여진 대인관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이며 쉽게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인 관계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친밀한 정서적 유대가 없는 사회적 관계의 경우 불연속적이거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노인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지닌 가족이나 절친 등과 우선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이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Frieder, 2001).





<그림 1> 개인의 생애과정 중 대인관계지향의 내적원인 (Carstensen, 1995)

또한 이 이론에 따르면 노인 중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년기에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더욱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목적(Emotional Goals)을 성취하는 것이 더욱 확고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간다고 한다 (Carstensen, Fung, and Charles, 1999).

이러한 정서적 목적(Emotional Goals)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노인은 건강한 노인에만 그치지 않고 건강이 약화되어서 ADL 돌봄수발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에게도 해당된다. Adel and Marit(2005)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돌봄제공을 받는 노인을 3집단으로 분류한 뒤, 돌봄제공에는 차이를 두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 관계형성 수준에만 차이를 두어 ‘개인적 관계형성이 친밀하게 이루어진 집단’,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개인적 관계형성이 이루어진 집단’, ‘개인적 관계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이러한 개인적 관계형성이 돌봄제공을 받는 노인에게 건강증진과 심리적 만족감 형성에 효과가 있는지 기간을 두고 측정해보았다. 그 결

과, 개인적 관계형성이 친밀하게 이루어진 집단에 속해 있는 노인은 개인적 관계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이나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개인적 관계형성이 이루어진 집단에 속해있는 노인들보다 더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의 후반기인 노년기에 와서는 가까운 인간관계의 정서적 관계를 중요시하게 된다는 Carstensen(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노인의 건강 및 심리적 만족감 형성에 개인적 관계형성의 친밀성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함의를 이끌어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심리사회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큰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3. 성별화된 연령주의 이론

성별화된 연령주의 이론(Gendered Ageism Theory)이란 “성별 특성의 차이는 노년기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축적되어온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건에 놓여있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박기남, 2005). 한 개인이 연령이 노년기에 도달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며,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성별에 따라서 다른 인생사를 살아가게 된다. 남성노인의 경우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위변화와 함께 직장동료들이라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장생활과 같은 외부활동이 본격적으로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역할상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남성노인의 경우 역할상실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을 다른 활동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역할전환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 남성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Arber, Davidson and Ginn, 2007). 여기에 대해서 Liang(1982)은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구조적인 요소는 없으며, 다만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보다 생계부양자로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이 더 많으므로 은퇴 이후 역할상실로 인한 주관적 삶의 질의 하락폭이 있는 편이고, 여성노인의 경우 비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보니 은퇴 이후 역할상실로 인한 주관적 삶의 질의 하락이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Peterson(1995)은 호주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134쌍의 노부부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조금 더 높았다. 그 원인으로 제시된 이유로는 남성노인들은 은퇴를 한 뒤 소득의 상실과 사회적 지위의 상실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 증가 및 은퇴 이후에도 가계부양자로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주관적 삶의 질을 하락시킨 반면, 여성노인들의 경우 은퇴 이전에도 수행하던 가사노동을 은퇴이후에도 여전히 담당할 수 있고 55세 이후에 생애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건 없이 노년기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질의 하락폭이 남성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성별화된 연령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의 주장대로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4. 경제수준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이론

경제수준별 주관적 삶의 질 이론이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외적인 사건들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가 개인이 처한 경제수준(economic status)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일상생활

을 유지해나가는데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Hardness)과 이로 인한 재정적 스트레스(Financial Stress)가 존재하는데, 금전적 지지를 제공받는 경우나 개인이 가진 소득이 증대되는 경우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과 재정적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한다. 반면, 경제수준이 빈곤상태를 벗어나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는데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경제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개인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지를 주기적으로 제공받게 되는 경우라도 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주관적 삶의 질의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한다(Diener and Biswas-diener, 2002). 또, 금전적 지지를 제공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경제수준이 조절효과를 준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녀 혹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해줄 경우, 개인이 속해있는 경제수준에 따라서 제공액수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변화량이 달라진다고 한다(Biswas-diener, 2008).

또한,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일 경우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 있어서 자신의 성별, 연령집단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조건의 영향력이 재정적 어려움과 재정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편감을 상쇄시키지 못할 만큼 적게 작용하지만, 경제수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성별, 연령집단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조건들에 따른 심리적 만족도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만큼 영향력이 커진다고 한다(Diener and Rahtz,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의 주장대로 경제수준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고, 성별, 연령집단, 자녀에게 제공받는 금전적 지지와 자녀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지가 주관적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제수준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또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 제2절. 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 및 이러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관적 삶의 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로는 “사회구조 및 문화적·사회적 환경”과 같은 외생적인 요소도 있고, “삶 속 환경적 조건에 정서적·심리적으로 반응하는 정신적 상태”와 같은 내생적인 요소도 있다(Abbott, 2006). 외생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경제적 수준 및 성별과 연령집단, 건강상태,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있고, 내생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접촉 및 연락, 만남빈도와 같은 개인 차원의 활동뿐 아니라 관계만족도, 금전적 지지, 돌봄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 1. 가족내 지지

가족내 지지의 개념을 장숙희(1991)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사랑과 지지의 교환이라는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가족내 지지라는 행위의 특성에는 공적 돌봄노동처럼 유급노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다양한 차원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모두 다 포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남궁명희, 2009)을 들 수 있다.

가족내 지지의 유형으로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사는 분가노인에게 가족구성원이 일주일에 몇 회씩 직접 찾아가서 금전적·심리사회적·돌봄제공을 제공하는 유형이 존재하고, 노인과 가족구성원이 동거하면서 금전적·심리사회적·돌봄제공을 제공하는 유형이 존재한다(장수미, 2008; 서연희, 2011). Adams and Blieszner(1995)는 “건강한 노화(Aging Well)”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서 친구들과 가족들의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설명했으며, 특히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의 3가지

구성요소로서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 도구적 지지(일상적 돌봄제공)이라고 정의했다.

먼저, 가정 내에서 노인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들과 딸과 같은 자녀들이며, 노인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수입을 벌여오는 자녀들이므로 나타났다(Brody and Schoonover, 1986). 그리고 자녀의 금전적 지지가 노인의 우울수치를 낮추고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연구 또한 존재하며(홍순혜, 1999),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에 비해 경제적 자원부족으로 인한 생활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자녀의 금전적 지지를 받을 경우에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보다 경제적 자원부족으로 인한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결과 역시 보고된 바가 있다(김경진·정여진, 2006)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이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자녀가 직접 노년기의 부모님의 집을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하는 행위가 노년기의 정서적 안녕감 및 부정적 정서의 감소에 도움이 되었고(Shanas, 1979), e-mail이나 인터넷을 통한 주기적인 대화와 같은 방식의 심리사회적지지 역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Vanderwerker and prigeron, 2003). 한편, Laurer, Laurer and Kerr(1995)은 미국내의 여러 주(state)에 살고 있는 중류층 이상의 소득수준을 지닌 400쌍의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자간 배우자의 심리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배우자의 심리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심리적 고통(Distress) 수치가 낮아지고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94.5%는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심리사회적지지 제공자는 배우자라고 답했으며 그 중 85%는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현재의 배우자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심리사회적 지지제공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Toni

and Hiroko(1987)에 의하면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심리사회적 지지의 상호제공을 주로 수행하는 한편, 여성노인은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심리사회적 지지를 폭넓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심리사회적 지지의 대상이 서로 다른 원인으로는 남성노인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만족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정서적 만족도 및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가족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여성노인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심리사회적 지지를 균등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scott and wenger(1995)는 여성노인의 경우 동일연령의 남성노인보다 친구 및 이웃의 심리사회적지지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서,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가족외 심리사회적지지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명진(2010)은 한국사회의 노인에게 심리·사회적 지지와 돌봄제공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가족내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심리·사회적 지지와 돌봄제공이라는 가족내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80.5%)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55세로 최소 23세부터 최대 88세까지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내 지지를 제공받는 노인과의 관계로는 자녀(39.1%)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51.4%)을 가진 사람이 많았으며, 소득은 평균 104.55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가족내 지지를 제공하는 시간으로는 일일 평균 9.1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노인에 대하여 가족내 지지를 수행하는 대부분이 사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진 60세 이하 여성이라는 것을 알려준다(이명진, 2010).

Cantor(1983)는 노년기에 가족내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돌봄제공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배우자이며, 그 다음이 성인기 자녀가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받는 돌봄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본다면 건강과 신체 영역, 감정과 기분상태 영역, 그리고 일상생활보조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Chappell and Blandford(1991)에 의하면 가족내 지지 중 돌봄제공은 개인차원의 방문요양보호사 지원 등의 공적인 돌봄 제공을 받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가난한 저소득층이거나 은퇴고령자의 건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어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가족내 돌봄제공이 장기간 수행될수록 은퇴고령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받게 되어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Chappell(1989)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남성노인에게 돌봄제공을 하는 주 대상층은 대부분 배우자이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돌봄 제공은 거의 없고 주로 자녀나 개인 간병인이 주로 돌봄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성별에 따라서 돌봄제공의 대상층이 달라짐을 밝혀냈다. Scott and wenges(1995) 또한 여성노인이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제공하는 빈도가 남성노인이 배우자에게 심리 사회적 지지 및 돌봄제공을 제공하는 빈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지지했다. Strawbridge et al(1997)은 노인이 성인자녀와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일상스트레스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성인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생겨나는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건강 및 질병문제가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진(2008)은 노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서비스 지원을 많이 제공할수록 성인자녀로부터 서비스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노부모가 유배우자인 경우 성인자녀로가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Troll, Miller and Atchley(1979)은 결혼 후 부부가 돈을 함께 버는 형태의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서 젊은 부부 둘만으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조부모에게 손자녀를 양육을 부탁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혼들의자에 앉아서 즐던 노인의 이미지를 가족 내의 요구에 부응하여 손자녀를 맡아서 키워주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이미지로 변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되었고, 실제로 조사된 손자녀 중 절반 이상이 한 달의 한번 이상은 조부모집을 방문해서 양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된 인원 중 26%는 매주 한번이상씩 조부모로부터 양육 돌봄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owers and Myers(1999)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경우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전일(Full-time)동안인지 아니면 하루의 일정시간동안만 부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인지가 심리적 부담감 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를 제시했다. Jendrek(1993)는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력도 더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노부모의 신체적 피곤감 증가 및 정서적 고갈, 사적시간의 감소와 함께 개인의 일상이 사라짐,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의 감소 등이 주로 경험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백경흔(2009)은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노인이 “연간 48주 미만, 주간 40시간미만”으로 수행한 경우보다 “연간 48주 이상, 주간 40시간 이상”으로 행한 경우에 류마티스 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 및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게 되고, 이는 여성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상의 원인은 손자녀 돌봄의 경우 아이를 “안고, 업고, 들어 올리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부터 목욕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대소변을 치워주는 등의 상당한 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수반”이기 때문에 여성노인들의 경우 “노년의 허약한 몸으로 손자녀를 돌봄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신체적 해로움”에 스스로의 건강상태가 더욱 취약하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금전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지지 및 돌봄제공을 주고받는 것으로 상호 제공적 가족내 지지를 구성하였다.

## 2. 가족외 지지

가족외 지지란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가족 이외의 지지망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친구나 이웃같이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기적인 대화, 격려, 개인적 도움 및 정서적 도움을 받는 심리사회적지지가 포함되고(Cantor, 1979),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이 친구, 이웃, 혹은 비친족간병인과 같은 돌봄제공자에게서 돌봄제공을 받는 것 또한 포함된다(Barker, 2002).

이은주(2007)에 의하면 한국의 도시거주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중 영향력이 큰 지지원은 친구, 이웃, 그리고 종교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 이웃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2~3회의 빈도로 접촉하며 종교인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1회 정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거주노인들이 노인복지관 이용횟수가 잦기 때문으로 추측되었고,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현재의 주관적 삶의 질과 과거의 회고적 삶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org and alfred(1993)는 성별 집단(남성, 여성)과 연령집단(연소노인, 중고령노인)별로 친구들로부터 심리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에 가장 효과성이 높은 집단이 어디인지 준실험설계를 통해 알아본 결과 여성중고령 노인집단이 친구지지를 제공받을 경우 가장 심리적 고통(distress)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중고령노인들이 친구집단이 가장 적기 때문에 말벗을 할 만한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기존의 단절된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외로움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유가 밝혀졌다. 또한 남성 중고령노인의 경우에도 낮은 친구지지를 경험할 경우 남성연소노인보다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는 중고령노인이 연소노인보다 친구집단을 대신할 사회적 지지체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적어서 친구 지지를 잃어버릴 경우에 심리적 고통 극복에 있어서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Pinguart, Martin and Silvia(2000)은 가족외 지지 중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연령이 적고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이 연령이 적을수록 비교적 양호해서 집에 찾아오는 재가방문원만을 기다리지 않고 집 밖에서 친구들이나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을만한 대상들을 찾아다닐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Stoller and Stephen J. Cutler(1992)는 자녀와 분거한 채 노인 단독가구의 형태로 사는 노인부부 구성원 중 한명이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남성노인 돌봄제공자들은 배우자를 수발할 경우 가족외 추가적인 돌봄제공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노인들은 배우자를 수발할 경우 별다른 가족외 도움 없이 단독으로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Branch and Jette(1983)는 장기요양보호를 받는 노인들 중 86%는 공적인 요양보호 이외에 사적 간병인과 같은 노인 수발전문가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받으며, 장기요양보호를 받는 노인들 중 50%는 장기요양보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외의 가족외부인으로부터 일상생활 도움을 포함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밝혀냈다. Branch and Jette(1983)는 여기서 간병인 같은 비공식적 지지체계도 장기요양보험의 잠재적 자원이자 보조매체로서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3.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이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 또한 인지적 행복감과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합쳐진 것이 곧 그 사람의 주관적 삶의 질이라는 연구(Kashdan, Biswas-Diener and King, 2008)도 있고, 불안 및 우울감이 적거나 없는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가 곧 주관적인 삶의 질이라고 정의하는 연구(Nes et al, 2008)도 있다.

이러한 개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Peterson, 1995)과 연령(Jonler et al, 1995), 사회적 지지(Finch et al, 1989), 가족과의 접촉빈도(Gary and masako, 1987),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지(오현복, 2010) 등이 있다.

#### 1) 성별과 연령

Cantor(1989)는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가 연약해지고 일상생활보조와 같은 도움이 점점 더 필요해지면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생활하는 삶의 연장선이 바로 노년기”라는 규범에 집착하면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건강, 신체적 힘, 기동성, 경제적 자원 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든다는 사실을 요청하고 가족 및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노년기의 딜레마”를 많은 노인들이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들에게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는 가정 내의 배우자와 자녀들, 친척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라는 비공식 영역, 개인간병인이나 자원봉사 조직으로부터 파견나올수 있는 자원봉사자라는 중간지점,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제도들로 이루어진 공식영역이 존재한다(Cantor, 1991).

김정엽(2010)은 74세 이하의 연소노인과 75세 이상의 고령노인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연소여성노인은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둘 다 높다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고령여성노인은 가족내 지지가 아닌 가족외 지지가 높다고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이는 고령여성노인의 경우 연소여성노인에 비해 독거이거나 무배우자인 경우가 많아 가족의 지지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일어나는 일이며, 고령여성노인의 경우 연소여성노인에 비해 가족에 의한 정서적 지지가 적어서 외로움 및 소외감의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가족외 지지를 정기적으로 받게 될 경우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심리적 위로를 받기 때문에 가족외 지지가 높다고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점도 있다.

## 2)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

Mutran and Reitzes(1984)는 가족내에서 세대간 지지(Intergenerational Support)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녀가 연락 및 직접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심리사회적 지지가 일어나는 경우에 심리사회적 지지만 받는 것보다, 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자녀와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병행하는 것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대간 지지를 받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 자신이 “도움을 줌(Giving Help)”이라는 변수의 유무에 따라서 이러한 세대간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유가 제시되었고, 노인이 수행하는 금전적 지지제공이 자녀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이유 또한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박기남(2005)의 경우 남성노인은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 주 1회 이상 전화연락을 할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가장 높았지만 이보다

더 빈도수가 높을 경우에는 주관적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밝혀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서 남성·여성 노인 모두 자녀와의 “주 1회 정도의 전화연락과 직접 만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부모- 자식관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대면접촉빈도 또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Gary and masako(1987)은 노인들은 자신이 성인기 자녀들과 함께 대면해서 만나는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기 자녀들과 함께 대면해서 만나는 빈도수가 낮아질 경우 정서적 상태가 ‘외로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외로움은 노년기 주관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외로움은 독거노인/배우자가 있는 노인/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등 가구유형에 따라서 그 확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사회의 경우 자녀의 대면접촉 및 전화연락을 통한 심리사회적 지지의 책임을 대부분 첫 번째 자녀가 맡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에 들어선 부모 또한 자녀가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대부분 첫 번째 자녀에게서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은연, 2002).

Cantor(1975)는 ‘자녀, 친밀한 친구, 이웃’이라는 세 종류의 개인적지지 시스템이 노년기 건강상태 및 주관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녀와의 심리사회적 지지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 다음이 친밀한 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였으며, 가장 효과적이 적었던 것이 이웃과의 심리사회적 지지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의 주장대로 자신의 생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느낄 때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가 주는 정서적 친밀감이 은퇴고령자의 건강상태 및 주관적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Gaugler, Zarit and Pearlin(1999)의 연구에 의하면 심리사회적 지지는 은퇴고령자의 가족인 ‘아내와 딸’이 사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요양시설 퇴소 후 환경 적응에 사위나 친족의 심리사회적 지지보다는 아내와

딸의 심리사회적 지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가족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위나 친족의 심리사회적 지지보다 가족내 심리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안정 및 노인요양시설 퇴소 후 적응에 더 도움이 된다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wers(2000)는 가족내에서 비공식 돌봄 및 가족내 지지를 노인이 받는 경우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서 공적 돌봄을 받는 노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노인의 인식한 돌봄의 질(Quality)과 주관적 만족도에는 '정서적/관계적' 측면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3) 가족외 지지

Wentowski(1981)는 노년기의 경우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와 친밀감 수준이라고 설명했으며, 친구 및 이웃의 지지를 통한 스트레스 대처 및 심리적 위안감 제공이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노년기 가족외부의 지지망에는 친한 친구, 그럭저럭 알고 지내는 친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지인, 알고지내는 이웃, 인사만 하는 이웃 등의 다양한 지지체계들이 존재하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의 정서적 지지의 효과는 알고지내는 이웃이나 인사만 하는 이웃의 정서적 지지의 효과보다 더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했다. 황미영(1999)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친구들이 주로 외로움 해결을 위한 말벗 및 일상적 어려움을 의논해주는 일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준다고 밝혔으며, 저소득층 노인이 친구들과 주당 접촉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Thomas et al(1998)은 노인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친한 친구들의 숫자 및 접촉빈도가 서서히 줄어들어 따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만족스럽고 남은 친구들과의 친밀감이나 유대감이 강할수록 노년기 우울감 및 고독감이 적어져서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친구의 숫자보다는 친구와의 주당평균 접촉빈도와 친밀감 및 유대감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Greg(1987)은 노년기에 친한 친구집단에 의한 사회적 지지를 ADL 손상과 심리적 고통을 덜어줌으로서 노년기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친구집단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중단될 경우 연소노인이 중고령노인보다 더 큰 정서적 고통을 입는다고 밝혔다. 이 현상의 이유로는 친한 친구집단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중단되는 것이 중고령노인보다는 연소노인에게 더 강한 괴로움의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주관적 삶의 질에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John et al(1989)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에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동시에 있다고 했다. 긍정적 사회적 관계망은 정서적 안녕감 및 심리사회적 지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갈등적 관계나 역기능적 가족 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노인에게 주어지는 가족외 지지의 경우에도 노인과 가족구성원의 관계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가족외 지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oelker and Bass(1989)는 외부간병인의 경우 가족내 돌봄제공자와 동등한 시간을 노인돌봄에 사용한다고 해도 가족내 돌봄제공자보다 돌봄스트레스 및 돌봄피로감을 상대적 덜 느끼면서 돌봄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노인이 자신 한명 때문에 타인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노인 돌봄이 외부간병인에게는 업무로서 인식되는 반면 가족내 돌봄제공자의 경우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부간병인이 돌봄제공하는 시간이 증가할 경우는 가족내에서 배우자



및 자녀가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이 증가할 때보다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적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Hellstrom and Hallberg(2001)은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봄제공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해본 결과, 노년기에는 자신의 집에서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는 것이 노인 스스로의 독립심을 고취시키고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 4) 건강상태와 동거자녀 유무

Zank & B. Leipold(2001)에 의하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인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여부 및 기억력 감퇴여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의 저하는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및 불안감을 들게 하며, 이러한 치매에 대한 불안감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은퇴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기능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Schneidera et al(2004)는 노인의 신체적 통증과 같은 객관적 건강상태(objective health condition)는 신체의 각 부위의 악화되는 부위가 많아질수록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다른 건강악화와 달리 신체적 통증은 쉽게 인식이 가능하고 일상적 생활에 불편을 주고 심리적 안녕감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와의 동거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무배우 남성노인의 경우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유배우 남성노인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혼인상태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심리적 행복감을 높임으로서 주관적 삶의 질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유성호, 1997).

#### 5) 경제수준

경제수준(economic Status)이란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의 재정을 벌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경제적 자원의 축적여부를 비교하는 상대적인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서 주관적 삶의 질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영향력을 주는 변수이다(Michael McBride, 2001). 또한, 은퇴고령자의 경우에도 경제수준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 혹은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기준이 되며, 만일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느끼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주관적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결과 역시 제시되어 있다(Diener and Suh, 1997).

### 제3절. 연구가설

연구문제 1.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자녀와의 금전적 지지, 배우자 및 자녀와의 심리사회적 지지, 돌봄제공) 및 가족외 지지(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 간병인의 돌봄제공)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연소노인집단이 중고령노인집단보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2]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3]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인 경우보다 일반 노인인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4]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는 일방적인 가족내 지지보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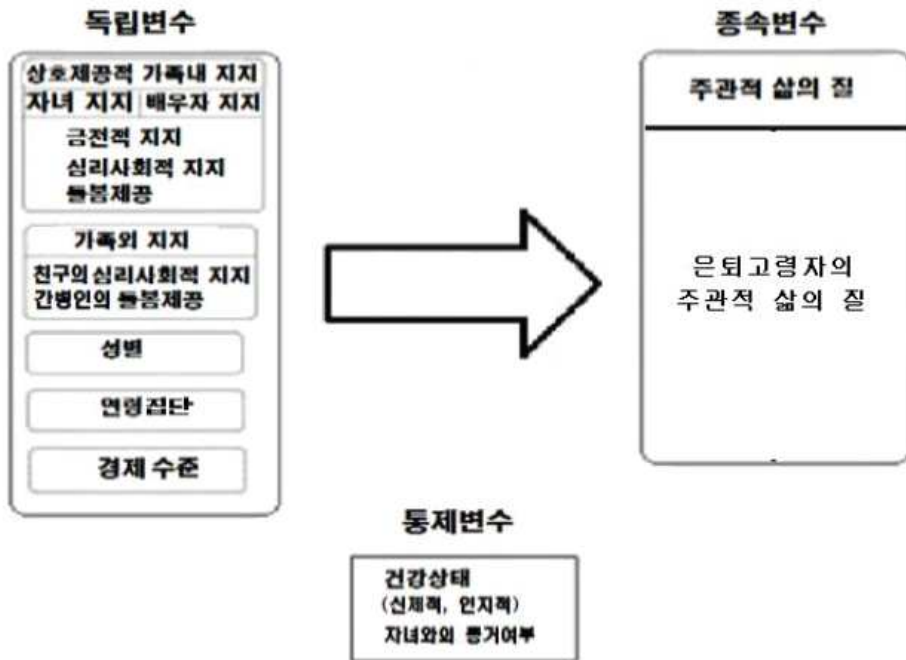
[연구가설 2-1] 연령집단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2-2]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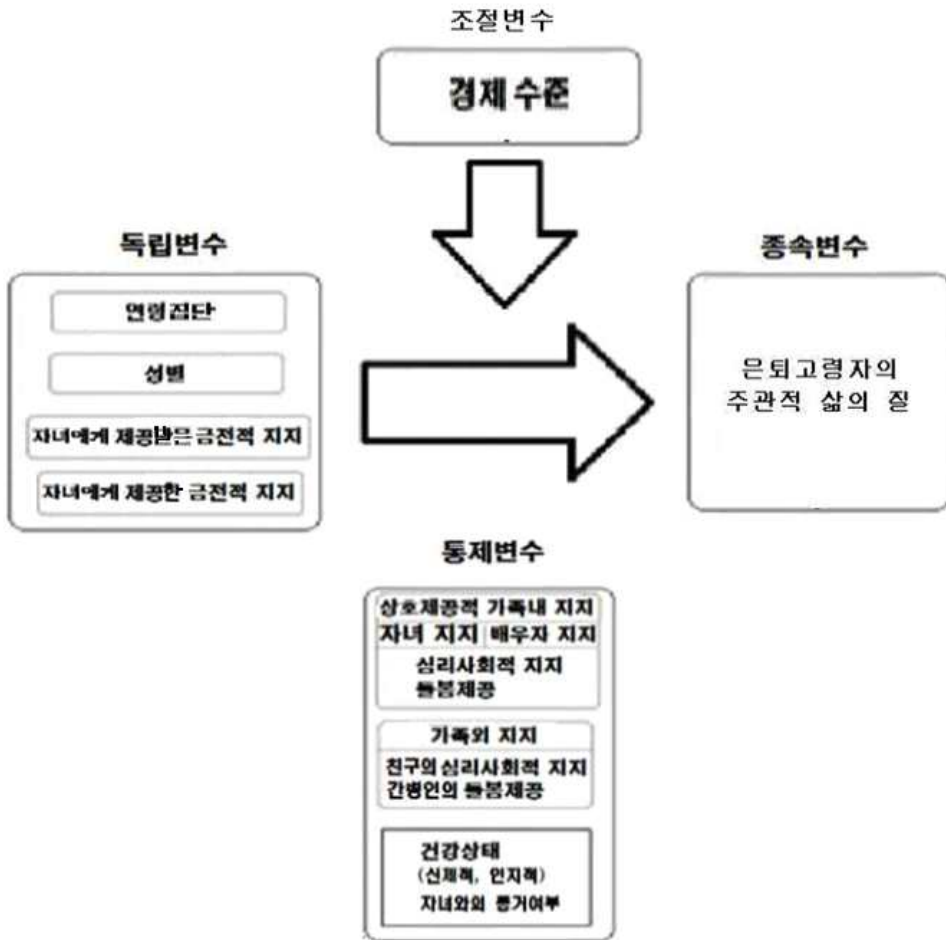
[연구가설 2-3]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수준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2-4]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구성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2>, <그림3>과 같다.



<그림 2> 주효과 연구모형



<그림3> 조절효과 연구모형

## 제3장. 연구방법

### 제1절.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한 고령화연구패널 제3차년도 기본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고령화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소득 및 자산 현황, 개인의 은퇴결정,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건강, 가족내 소득 이전 등을 파악하기에 기초한 전국 대표성을 갖춘 만 50세 이상 표본 약 7,920명을 패널로 구축해서 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자료이다.

그런데,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건강상태가 일정수준 이하로 저하된 경우 만성질환, 인지기능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독자적 기능 상실로 인해서 우울경향을 경험하고 쉽기 때문에, 신체적·인지적 건강상태가 일정수준 이하로 저하된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별도로 의학적·간 호적 중재가 없는 한은 대다수가 주관적 삶의 질을 부정적인 패턴으로 나타내기 쉽다(전은영·최연희, 2010). 이에 신체부위 중 통증이 있는 부분이 3개를 초과하거나 인지적 건강상태가 “치매의심”이라고 측정된 대상을 제외하고 나쁘지 않은 건강상태를 유지한다고 판단되는 은퇴고령자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제 3차년도 기본조사 자료 중 55세 이상이면서 한 명 이상의 생존자녀를 두고 있으며 통증을 느끼는 신체적 부위가 3개 이하이면서 “인지기능저하”이상의 인지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배우은퇴노인 2254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 종속변수

#### 1) 은퇴고령자

박창제(2013)는 은퇴고령자를 가리켜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였으며, 박경숙(2003)은 한국사회에서 은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령인 만 55세 이후부터를 가리켜 은퇴고령자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창제(2013)와 박경숙(2003)의 정의를 바탕으로 “더 이상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은퇴고령자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판단요소이며, 노인의 경우 이러한 주관적 판단의 요소는 주로 행복감(정서적 평가)과 만족감(인지적 평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rack, Argyle and Schwarz, 1991). 즉, 노인에게 있어서 주관적 삶의 질이란 “객관적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한석태, 2008). 본 연구에서는 3차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사용했는데, 3차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을 “자기 자신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으로 정의하였으며, 0점부터 100점까지 항목을 정해서 응답자가 스스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한국고용정보원, 2010).

## 2. 독립변수

### 1) 성별

이 변수는 은퇴고령자의 성별을 측정하며, 여성을 기준집단으로 한다.

### 2) 연령집단

이 변수는 2010년도 당시의 은퇴고령자의 연령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측정한다. Neugarten(1974)은 노인 중 55~75세에 해당하는 노인은 연소노인으로, 76세 이상에 해당되는 노인은 중고령노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 구분법에 따라서 연령집단을 연소노인집단(55-75세)과 중고령노인집단(76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연소노인을 기준집단으로 하였다.

### 3) 경제수준

Dinner et al(1992)은 빈곤층 이하의 경제적 수준을 지닌 은퇴고령자는 삶의 질과 경제적 소득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지만, 중류층이상의 경제적 소득을 지닌 일반 은퇴고령자의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경제적 소득보다는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만족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고령자의 경제수준이 소득 하위 25%인 집단과 경제수준이 소득 상위 75%인 집단을 분리해서 저소득층과 중류층 이상의 일반 은퇴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가족 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은퇴고령자의 경제수준은 일반적으로는 은퇴고령자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데, 한국사회 내에서 현재 55세 이상 연령을 지니고 있으면서 노동시장에서 물러남을 경험한 은퇴고령자들의 경우 개인이 속한 가구의 도움 없이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월평균 2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기에(통계청, 2010),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공적/사적연금 및 공적부조수급을 통한 소득에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임대수입이나 금융수입”을 포함하면서 각종 비용 또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측정하고자(박미려, 2007)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집단과 중류층이상의 일반 은퇴고령자집단을 구분하는 경제수준의 기준을 연구대상의 월평균 가구소득중 하위 25%에 해당되는 62만원이하로 정하였다.

#### 4)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

가족내 지지(Family Support)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와도 같은 개념으로, 상호간의 깊은 관계의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내에서 삶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완화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행동이며(Coob, 1976), 가족내 지지에는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 그리고 돌봄제공이 있다. 따라서,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란 노년층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배우자 간에 심리사회적 및 금전적 지지, 돌봄제공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금전적 지지란 일정금액을 매월이나 격월과 같은 일정주기로 주거나 받는 지지행동을 말하며, 정기적으로 받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받는 행위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은퇴고령자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받은 금전적지지 및 비금전적 지지의 월 평균 액수와, 은퇴고령자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지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심리사회적지지만 가족 내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사랑을 표현하는 지지방식으로, 서로의 일상적인 문제거리에도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지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며, 주로 통신수단을 통한 정기적인 비대면적 연락과 직접 만나서 상대방과 대면해서 안부를 묻는 행위가 포함된다(Cicirelli,

1990). 은퇴고령자가 배우자에게서 받는 심리사회적 지지는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로 측정하며, 자녀에게서 받는 심리사회적 지지는 첫 번째 자녀와 매주 접촉(대면과 비대면 포함)하는 횟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돌봄”이란 스스로 자신을 보살필 수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로서, 돌봄은 정서적 관계를 포함한 감정의 영역이면서 돌봄 대상자를 위해 가사적인 일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들을 수행하거나 제공받는 활동으로(최희경, 2011), 본 연구에서는 자녀(손자녀 포함)와 배우자간 한 주당 수행하는 평균적 돌봄제공시간으로 측정하였다.

#### 5) 가족외 지지

가족외 지지(Non-Family support)란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심리사회적 지지 및 돌봄제공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주로 노인과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나 노인의 가정에서 고용한 개인간병인이 여기에 해당된다(Croog, lipson and levine, 1972). 본 연구에서는 가족외 지지를 노인이 친구로부터 받는 심리사회적지지와 간병인으로부터 받는 돌봄제공으로 분석하였다. 친구로부터 수혜받는 심리사회적지지의 경우에는 한 주당 친구와 만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로 평가하였고, 간병인으로부터 수혜받는 돌봄제공의 경우 한 주당 간병인이 수행하는 평균적 돌봄제공시간으로 측정하였다.

### 3. 통제변수

#### 1) 건강상태

WONCA(World Organization of National Colleges and Academics)에 의해 정의된 노인의 긍정적 건강상태란 독립적인 일

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기능 및 상태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며 생활하는 인간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를 말하며, 노인의 인지적·심리적 기능 및 상태는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소이다(정재필, 2012).

은퇴고령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의 경우 은퇴고령자가 신체적 통증을 느끼는 신체의 각 부분의 합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신체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적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는 선행연구에 따른 것이다(Jakobson&hallberg, 2002). 선행연구에서는 통증이 느껴지는 신체부위가 3군데를 넘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통증 때문에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체적 건강상태는 통증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3군데일 경우에는 1점, 2군데일 경우에는 2점, 1군데일 경우에는 3점, 한 군데도 없을 경우에는 4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은퇴고령자의 인지적 건강상태의 경우 치매진행여부로 평가하였는데, Zank&Leipold(2001)에 의하면 치매가 시작되는 노인의 경우 우울증상과 함께 낮아진 주관적 삶의 질을 체험하는 상황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한다. 또한, 우울증상과 주관적 삶의 질의 하락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경우는 치매가 상당히 경과된 후기보다 치매가 의심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인지적 건강상태는 정상과 인지기능 저하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건강상태와 신체적 건강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인지적으로 치매가 아니면서, 통증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3군데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사용할 때 은퇴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건강상태를 각각 나누어서 이를 측정하였다.

## 2) 자녀와의 동거여부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가 존재(유성호, 1997)하므로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변수는 자녀와 동거하는지 아니면 분거해서 사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변수이며, 기준변수는 자녀와 분거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변수를 종합해보면 [표1-1]과 같다.

[표 1-1] 변수의 종류 및 측정방법

종류	변수명	형태	측정
통제변수	신체적 건강상태	연속	1= 통증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3군데 2= 통증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2군데 3= 통증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1군데 4= 통증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없음
	인지적 건강상태	더미	0 = 인지기능저하, 1 = 정상
	자녀와의 동거여부	더미	0= 동거하지 않음, 1= 동거하고 있음
독립변수	연령집단	더미	0=연소노인, 1= 중고령노인
	성별	더미	0 = 여성, 1 = 남성
	경제수준	더미	0 = 저소득층 1 = 일반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연속	비정기적 금전적 지지 월평균액수와 정기적 금전적 지지 월평균액수를 합산하여 측정.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	더미	0 = 없음 1 = 있음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연속	배우자와의 대인관계에 대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만족도수준을 100점 만점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측정.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연속	일주일에 첫 번째 자녀와 연락하는 평균적인 횟수로 측정.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 빈도	연속	일주일에 첫 번째 자녀와 대면해서 만나는 평균적인 횟수로 측정.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연속	일주일에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평균적인 시간으로 측정.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연속	일주일에 자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평균적인 시간으로 측정.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연속	일주일에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평균적인 시간으로 측정.
자녀 및 10세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연속	일주일에 자녀 및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평균적인 시간으로 측정.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연속	일주일에 친구들과 만나는 평균적인 시간으로 측정.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연속	일주일에 간병인에게 돌봄을 제공받는 평균적인 시간으로 측정.
중 속 변 수	주관적 삶의 질	연속	노인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100점 만점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측정.

### 제3절.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모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통제변수인 건강상태와 자녀와의 동거여부 및 독립변수중 성별과 연령집단 및 경제수준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였고, 가족내 지지 수혜(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지, 금전적 지지, 돌봄제공) 및 가족외 지지 수혜(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 간병인의 돌봄제공)를 2단계에 투입하였으며, 가족내 지지 제공(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지, 금전적 지지, 돌봄제공)을 3단계에 투입하였고 그 순서에 따라 위계적 회귀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단계별로 은퇴고령자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방법(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을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연구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자녀와의 금전적 지지, 배우자 및 자녀와의 심리사회적 지지, 돌봄제공) 및 가족외 지지(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 간병인의 돌봄제공)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모형 1]  $Y(\text{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X_1$ : 신체적 건강상태

$X_2$ : 인지적 건강상태

X<sub>3</sub>: 자녀와의 동거여부

X<sub>4</sub>: 성별

X<sub>5</sub>: 연령집단

X<sub>6</sub>: 경제수준

$$\begin{aligned} \text{[모형 2]} \quad Y(\text{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 \beta_{12} X_{12} + \beta_{13} X_{13} + \beta_{14} X_{14} \end{aligned}$$

X<sub>1</sub>: 신체적 건강상태

X<sub>2</sub>: 인지적 건강상태

X<sub>3</sub>: 자녀와의 동거여부

X<sub>4</sub>: 성별

X<sub>5</sub>: 연령집단

X<sub>6</sub>: 경제수준

X<sub>7</sub>: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X<sub>8</sub>: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X<sub>9</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X<sub>10</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X<sub>11</sub>: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X<sub>12</sub>: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X<sub>13</sub>: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X<sub>14</sub>: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begin{aligned} \text{[모형 3]} \quad Y(\text{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 \beta_{12} X_{12} + \beta_{13} X_{13} + \beta_{14} X_{14} + \beta_{15} X_{15} + \beta_{16} X_{16} + \beta_{17} X_{17} \end{aligned}$$

X<sub>1</sub>: 신체적 건강상태



- X<sub>2</sub>: 인지적 건강상태
- X<sub>3</sub>: 자녀와의 동거여부
- X<sub>4</sub>: 성별
- X<sub>5</sub>: 연령집단
- X<sub>6</sub>: 경제수준
- X<sub>7</sub>: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 X<sub>8</sub>: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 X<sub>9</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 X<sub>10</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 X<sub>11</sub>: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 X<sub>12</sub>: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 X<sub>13</sub>: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 X<sub>14</sub>: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 X<sub>15</sub>: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
- X<sub>16</sub>: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 X<sub>17</sub>: 자녀와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 2.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수준의 조절효과

[모형 1]  $Y(\text{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beta_{12} X_{12}$

- X<sub>1</sub>: 신체적 건강상태
- X<sub>2</sub>: 인지적 건강상태
- X<sub>3</sub>: 자녀와의 동거여부
- X<sub>4</sub>: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 X<sub>5</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 X<sub>6</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 X<sub>7</sub>: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 X<sub>8</sub>: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 X<sub>9</sub>: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 X<sub>10</sub>: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 X<sub>11</sub>: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 X<sub>12</sub>: 자녀와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text{모형 2}] Y(\text{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beta_{12} X_{12} + \beta_{13} X_{13} + \beta_{14} X_{14} + \beta_{15} X_{15} + \beta_{16} X_{16} + \beta_{17} X_{17}$$

- X<sub>1</sub>: 신체적 건강상태
- X<sub>2</sub>: 인지적 건강상태
- X<sub>3</sub>: 자녀와의 동거여부
- X<sub>4</sub>: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 X<sub>5</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 X<sub>6</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 X<sub>7</sub>: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 X<sub>8</sub>: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 X<sub>9</sub>: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 X<sub>10</sub>: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 X<sub>11</sub>: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 X<sub>12</sub>: 자녀와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 X<sub>13</sub>: 연령집단
- X<sub>14</sub>: 성별
- X<sub>15</sub>: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 X<sub>16</sub>: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
- X<sub>17</sub>: 경제수준

$$[모형 3] Y(\text{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beta_{12} X_{12} + \beta_{13} X_{13} + \beta_{14} X_{14} + \beta_{15} X_{15} + \beta_{16} X_{16} + \beta_{17} X_{17} + \beta_{18} X_{18} + \beta_{19} X_{19} + \beta_{20} X_{20} + \beta_{21} X_{21}$$

X<sub>1</sub>: 신체적 건강상태

X<sub>2</sub>: 인지적 건강상태

X<sub>3</sub>: 자녀와의 동거여부

X<sub>4</sub>: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X<sub>5</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X<sub>6</sub>: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X<sub>7</sub>: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X<sub>8</sub>: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X<sub>9</sub>: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X<sub>10</sub>: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X<sub>11</sub>: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X<sub>12</sub>: 자녀와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X<sub>13</sub>: 연령집단

X<sub>14</sub>: 성별

X<sub>15</sub>: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X<sub>16</sub>: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

X<sub>17</sub>: 경제수준

X<sub>18</sub>: 연령집단\*경제수준

X<sub>19</sub>: 성별\*경제수준

X<sub>20</sub>: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경제수준

X<sub>21</sub>: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경제수준

## 제4장. 분석 결과

###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 독립변수의 특성

먼저 성별에 관해 살펴보면, 전체집단에서는 여성(57.2%)이 남성(42.8%)보다 더 많았고, 연령에서는 60대가 가장 많고(44.4%), 70대(29.9%), 50대(17.8%) 순이었으며, 80대 이상(7.9%)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연령집단별로 비교해보면 연소노인집단은 79.6%이었으며 중고령노인집단은 20.4%로 나타났다.

가족내 지지 중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를 살펴보면 금전적 지지를 받지 않는 경우(60%), 50만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33.9%), 50~100만원사이로 받는 경우(5.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의 경우 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집단이 97.3%이고, 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집단은 2.7%에 불과하여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심리사회적 지지변인 중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를 보자면 51~75점(47.1%), 76~100점(31.9%), 20~50점인 사람(18.5%), 25점미만(2.6%) 순으로 나타나 은퇴고령자 중 79%가 배우자의 심리사회적 지지에 대해 절반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는 격주에 1회 이하로 연락하는 경우(49.2%), 주 1회 연락하는 경우(26.5%), 주 2~3회 연락하는 경우(14.8%), 주 4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 (9.4%)순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을 하는 경우 격주에 1회 이하로 만나는 경우(86.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1회 만나는 경우(7.6%), 일주일에 4회 만나는 경우(4.1%), 일주일에

2~3회 만나는 경우(2.2%)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는 주당 평균시간의 경우, 배우자에게 돌봄을 받지 않음(94.5%)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당 10시간 이상 돌봄을 받은 경우(4.1%), 주당 10시간미만으로 돌봄을 받는 경우(2.0%)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는 주당평균시간의 경우 자녀에게 돌봄을 받지 않음(99.3%), 주당 10시간미만으로 돌봄을 받는 경우(0.5%),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돌봄을 받는 경우(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은 전체 은퇴고령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음(94.5%)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3.3%), 주당 10시간미만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및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은 자녀 및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음(96.3%), 주당 40시간 이상(2.4%), 주당 40시간미만(1.3%) 순이었다.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는 격주에 한번이하 빈도로 만나는 경우(35.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1회 만나는 경우(26.4%), 일주일에 4회 만나는 경우(24.8%), 일주일에 2~3회 만나는 경우(13.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은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지 않음(99.0%)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간병인에게 주당 10시간미만으로 돌봄제공을 받음(0.6%), 간병인에게 주당 10시간 이상 돌봄제공을 받음(0.4%)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은퇴고령자가 가족내 혹은 가족외에서 돌봄을 제공받거나, 가족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2-1]과 같다.

[표 2-1] 독립변수의 특성

특성	구분	전체(n=2254)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성별	남성	964	42.8	-	-	-	-
	여성	1290	57.2				
연령	50대	327	14.5	68.61	7.87	55	93
	60대	915	40.6				
	70대	795	35.3				
	80대 이상	217	9.6				
연령집단	연소노인 (55-75세)	1795	79.6	-	-	-	-
	중고령노인 (76세 이상)	459	20.4				
경제수준	저소득층	532	23.3	-	-	-	-
	일반	1722	76.7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만원)	없음	1341	59.5	10.68	30.84	0	837.5
	50만원 미만	763	33.9				
	50만원~ 100만원	121	5.3				
	100만원 초과	29	1.3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 (만원)	없음	2193	97.3	2.56	31.67	0	123.3
	50만원 미만	29	1.3				
	50만원~ 100만원	15	0.7				
	100만원 초과	17	0.8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25점 미만	58	2.6	2.56	31.67	0	100
	25~50점	416	18.5				
	51~75점	1061	47.1				
	76~100점	719	31.9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주당 4회이상	213	9.4	1.08	1.38	-	-
	주당 2~3회	334	14.8				
	주당 1회	597	26.5				
	기타(격주에 1회 이하)	1110	49.2				

첫 번째 자녀와 주당 평균 대면만남 빈도	주당 4회이상	92	4.1	1.08	1.38	-	-
	주당 2~3회	50	2.2				
	주당 1회	171	7.6				
	기타(격주에 1회 이하)	1941	86.1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없음	2117	93.9	1.78	9.28	0	31
	주당 10시간 미만	42	2.0				
	주당 10시간 이상	95	4.1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없음	2238	99.3	0.06	1.01	0	30
	주당 10시간 미만	10	0.5				
	주당 10시간 이상	6	0.2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없음	2131	94.5	1.78	9.28	0	53
	주당 10시간 미만	48	2.2				
	주당 10시간 이상	75	3.3				
자녀 및 10세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	없음	2170	96.3	2.47	17.63	0	115
	주당 40시간 미만	31	1.3				
	주당 40시간 이상	53	2.4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 평균횟수	주당 4회이상	560	24.8	1.90	2.01	-	-
	주당 2~3회	301	13.4				
	주당 1회	595	26.4				
	기타(격주에 1회 이하)	798	35.4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	없음	2240	99.0	0.03	0.96	0	30
	주당 10시간 미만	10	0.6				
	주당 10시간 이상	4	0.4				

## 2. 종속변수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의 경향으로는 전체 은퇴고령자의 경우 51~75점(45.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5~50점(30.5%), 76~100점(21.4%), 25점 미만(3.0%)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2-2]과 같다.

[표 2-2] 종속변수의 특성

특성	구분	전체(n=2254)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주관적 삶의 질	25점 미만	68	3.0		
	25~50점	688	30.5		
	51~75점	1015	45.0		
	76~100점	483	21.4		

## 3. 통제변수

먼저 신체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전체 은퇴고령자에서는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없음(55.7%)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1군데(29.1%),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2군데(11.0%),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3군데(4.2%)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건강상태의 경우, 정상(67.4%)이 인지기능저하(32.6%)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자녀와의 동거여부의 경우, 은퇴고령자들 중 동거하지 않는 경우(66.3%)가 동거하는 경우(36.7%)보다 더 많았다.



[표 2-3] 통제변수의 특성

특성	구분	전체(n=2254)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신체적 건강상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없음	1255	55.7	0.6366	0.83830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1군데	657	29.1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2군데	248	11.0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3군데	94	4.2		
인지적 건강상태	정상	1520	67.4	-	-
	인지기능저하	734	32.6		
자녀와의 동거여부	예	828	36.7	-	-
	아니오	1426	63.3		

## 제2절. 주요 분석 결과

1. 연구문제 1: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지, 금전적 지지, 돌봄제공) 및 가족외 지지(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 간병인의 돌봄제공)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 1) 분산팽창지수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해보았고, 그 결과는 [표 3-1]과 [표 3-2]에 제시하였다.

우선 분산팽창지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도가 0.4보다 작은 독립변수가 있거나 VIF가 2.5보다 큰 독립변수가 있으면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김태근, 2006), 본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경우 [표 3-1]에 수록된 바와 같이 VIF수치는 1.013~1.359이며, 허용도(Tolerance)는 .736~.993으로 나타났으므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Pearson 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해 본 결과, [표 3-2]에서 제시된 총 17개의 변수 독립·통제 변수 중에서 14개의 변수가  $p < .05$ 와  $p < .01$ , 그리고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546)으로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건강상태(.159),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연락빈도(.137),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128), 신체적 건강상태(.125)라는 독립·통제변수도  $p < .01$ 의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와 일정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에게 제공한

월평균 금전적 지지(0.59),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71) 신체적 건강상태(.093)라는 독립변수의 경우  $p < .05$ 의 유의 수준에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동거여부(.013),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평균시간(-.041), 자녀와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평균시간(.017)이라는 독립·통제변수는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간 상관계수가 .002~.546에 분포되어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회귀분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분석

변수명	분산팽창 지수(VIF)	허용도 (Tolerance)
은퇴고령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1.086	.921
은퇴고령자의 인지적 건강상태	1.104	.906
자녀와의 동거여부	1.148	.871
은퇴고령자의 성별	1.193	.838
은퇴고령자의 연령집단	1.134	.882
은퇴고령자의 경제수준	1.126	.888
자녀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지	1.056	.947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	1.034	.967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1.359	.736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접촉횟수	1.288	.776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1.075	.931
친한 친구들과 한 주당 만나는 횟수	1.044	.957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1.055	.948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1.012	.988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1.007	.993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1.014	.986
자녀 및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1.039	.962

[표 3-2] 변수간 Pearson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주관적 삶의 질	1																		
2 신체적 건강상태	.125**	1																	
3 인지적 건강상태	.159**	-.141	1																
4 자녀와의동거여부	.013	-.049	.029	1															
5 성별	-.040*	-.175	.039	.018	1														
6 연령집단	-.068*	-.013	-.136**	-.056*	.250**	1													
7 경제수준	.147**	-.072**	.151**	.283**	-.088**	-.158**	1												
8 자녀에게 받은 월 평균 금전적지지	.043*	.043	-.041	-.124*	-.128**	.061*	-.011	1											
9 배우자와 관계만족 도	.546***	.053	.181**	-.015	.072**	-.040	.087**	.001	1										
10 첫번째 자녀와 평균연락빈도	.137**	.019	.115**	-.209**	-.071**	-.062*	.015	.030	.116**	1									
11 첫 번째 자녀와 평균대면만남빈도	.038*	.000	.030	-.037	-.050*	-.026	.025	.049*	.030	.473**	1								
12 배우자의 돌봄제공 을 받은 평균시간	-.092**	.082	-.041	-.007	.149**	.071**	-.048*	-.026	.036	-.044	.002	1							
13 자녀의 돌봄제공을 받은 평균시간	-.081**	.051	-.021	.022	-.025	.009	-.050*	-.011	-.055*	.002	.044	-.012	1						
14 친구들과 만나는 평균횟수	.128**	.042	.041	-.057*	-.048*	.028	-.034	.040	.086**	.141**	-.010	-.052	-.047	1					
15 간병인의 돌봄제공 을 받은 평균시간	-.053*	-.009	-.032	.017	.029	.021	.016	-.009	.033	-.024	-.013	-.008	-.002	-.024	1				
16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지지	.060*	-.028	.006	-.031	-.060*	-.039	.034	-.005	.014	.003	-.020	.002	-.003	-.014	-.004	1			
17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평균시간	-.041	-.024	-.021	.026	.010	.005	-.028	.055*	-.031	-.007	.022	.065*	.004	-0.45	-.008	.029	1		
18 자녀와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평균시간	.017	.054	.017	.035	-.099**	-.072**	.004	-.157**	.048*	.108**	.156**	-.030	-.010	.029	-.006	-.011	.087**	1	

\* p<.05, \*\* p<.01, \*\*\* p<.001

## 2) 위계적 회귀모형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독립변수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주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서, 통제변수만 투입한 첫 번째 단계는 4.5%의 설명력을 갖는다( $R^2=.045$ ,  $F=23.664$ ).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인지적 건강상태,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이 있으며, 성별과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인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지지 변수 중 은퇴고령자가 제공받는 변수들을 투입한 것으로 33.1%의 설명력을 갖는다( $R^2=33.1$ ,  $F=80.418$ ). 두 번째 단계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 비해서 설명력이 27.4% 증가하였으며, [표 3-3]을 볼 때 첫 번째 단계에서 투입된 변수 중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인지적 건강상태, 연령집단과 경제수준, 그리고 성별이 있으며, 성별이라는 변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 단계에 새롭게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는 성별,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첫 번째 자녀와의 주당평균 연락빈도,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 횟수,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첫 번째 자녀와의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는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입된 독립변수 중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

도, 첫 번째 자녀와의 주당평균 연락빈도,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 횟수는 종속변수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자녀로부터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은 종속변수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이는 여성일수록, 연소노인일수록,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액이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첫 번째 자녀와의 주당평균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이 적을수록,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 횟수가 많을수록,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이 적을수록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가 투입된 상태에서 은퇴고령자가 제공하는 가족지지 변수들을 투입한 것으로, 이 단계의 설명력은 33.3%이다( $R^2=.333$ ,  $F=66.999$ ). 세 번째 단계의 경우 두 번째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0.2% 증가하였으며, [표 3-3]을 볼 때 세 번째 단계에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투입된 후 유의미한 영향을 주던 독립변수들에 더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새로 투입한 변수인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독립변수 중 성별, 연령집단,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 횟수,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는 종속변수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배우자로부터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은 종속변수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여성인 경우, 연소노인집단인 경우,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액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

균 연락빈도가 많을수록,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이 적을수록, 간병인으로부터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 평균시간이 적을수록,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가 많고 자녀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지가 있을 경우 증대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단계에서도 통제변수 중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 중에서도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자녀와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 및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단계1		단계2		단계3	
		B <sup>A</sup>	S.E.	B <sup>A</sup>	S.E.	B <sup>A</sup>	S.E.
통제변수	신체적 건강상태	2.164***	.009	1.736***	.009	1.696***	.008
	인지적 건강상태	4.612***	.018	.713*	.016	.696*	.014
	자녀와의 동거여부	.025	.016	1.075	.014	1.165	.014
독립변수	성별	-1.425	.017	-1.486*	.014	-1.414*	.014
	연령집단	-2.257*	.019	-1.452*	.014	-1.485*	.016
	경제수준	4.398***	.019	3.435***	.016	3.363**	.016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지지			.023**	.000	.025**	.000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483**	.000	.482***	.001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724***	.005	.719***	.006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228	.008	-.162	.009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267***	.001	-.266**	.001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1.024*	.006	-1.062**	.001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0.596***	.003	.601***	.007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991*	.007	-.993*	.003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지지					1.512**	.038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43	.001
자녀와 10세 미 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18	.001
(상수항)	67.647***	.023	26.285***	.030	26.377***	.030
사례수(N)						2254
R Square	.057		.331		.333	
F값	23.665**		80.418***		66.999***	

\* p<.05, \*\* p<.01, \*\*\* p<.001, <sup>A</sup> = 비표준화 회귀계수

## 2. 연구문제2: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수준의 조절효과

여기서는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라는 변수와 경제수준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봄으로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 1) 연령집단

연령집단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존모델에서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이라는 독립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첫 번째 단계의 경우 32.8%의 설명력을 갖는다( $R^2=.328$ ,  $F=74.089$ ).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을 투입한 두 번째 단계의 경우 33.3%의 설명력을 갖는다( $R^2=.333$ ,  $F=66.999$ ). 이는 첫 번째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0.5% 증가했으며,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이라는 독립변수의 투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가 투입된 상태에서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것으로, 이 단계의 설명력은 33.4%이다( $R^2=.334$ ,  $F=63.462$ ). 이는 두 번째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0.1% 증가했으며,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정리하자면 [표 4-1]와 같다.

[표 4-1] 연령집단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분석 결과

변수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단계1		단계2		단계3	
		B <sup>A</sup>	S.E.	B <sup>A</sup>	S.E.	B <sup>A</sup>	S.E.
통제 변수	신체적 건강상태	1.785***	.028	1.695***	.008	1.702***	.008
	인지적 건강상태	1.124*	.014	.698*	.014	.702*	.014
	자녀와의 동거여부	2.036	.013	1.162	.013	1.159	.013
	성별	-1.979*	.013	-1.407*	.014	-1.424*	.014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지지	.023**	.000	.025**	.000	.025**	.000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488***	.000	.482***	.000	.482***	.000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753***	.005	.719***	.005	.714***	.005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156	.008	-.162	.008	-.162	.008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272**	.001	-.267**	.001	-.267**	.001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1.084**	.006	-1.025**	.006	-1.022**	.006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 평균횟수	.562***	.003	.601***	.003	.597***	.003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973**	.007	-.994**	.007	-.995**	.007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지지	.024**	.000	.023**	.000	1.532**	.000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44	.001	-.043	.001	-.043	.001

	자녀와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18	.000	-.018	.000	-.018	.000
독립변수	연령집단			-1.485*	.016	-2.398*	.017
	경제수준			3.363**	.016	2.994**	.016
	연령집단*경제수준					1.333	.034
	(상수항)	28.061***	.028	22.930***	.038	23.042***	.038
	사례수(N)	2254					
	R Square	.328		.333		.334	
	F값	74.170		66.999		63.462	

\* p<.05, \*\* p<.01, \*\*\* p<.001, <sup>A</sup> = 비표준화 회귀계수

여기서,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집단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2) 성별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존모델에서 성별과 경제수준이라는 독립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첫 번째 단계의 경우 32.8%의 설명력을 갖는다( $R^2=.328$ ,  $F=74.170$ ).

성별과 경제수준을 투입한 두 번째 단계의 경우 33.3%의 설명력을 갖는다( $R^2=.333$ ,  $F=67.033$ ). 이는 첫 번째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0.5% 증가했으며, 성별과 경제수준이라는 독립변수의 투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가 투입된 상태에서 성별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것으로, 이 단계의 설명력은 33.4%이다

( $R^2=.334$ ,  $F=63.281$ ). 이는 두 번째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0.1% 증가했으며, 성별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정리하자면 [표 4-2]와 같다.

[표 4-2]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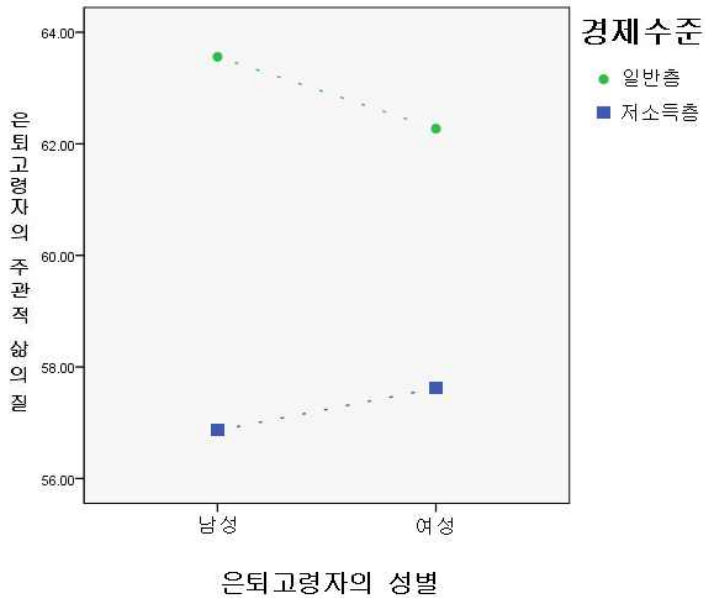
변수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단계1		단계2		단계3	
		B <sup>A</sup>	S.E.	B <sup>A</sup>	S.E.	B <sup>A</sup>	S.E.
통 제 변 수	신체적 건강상태	1.604***	.028	1.695***	.008	1.693***	.008
	인지적 건강상태	.808*	.014	.698*	.014	.697*	.014
	자녀와의 동거여부	1.949	.013	1.162	.013	1.162	.013
	연령집단	-2.321*	.016	-1.479*	.016	-1.481*	.016
	자녀로부터 받 은 월평균 금전 적지지	.028**	.000	.025**	.000	.025**	.000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483***	.000	.482***	.000	.482***	.000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730***	.005	.719***	.005	.718***	.005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116	.008	-.162	.008	-.162	.008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289**	.001	-.267**	.001	-.267**	.001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1.079**	.006	-1.025**	.006	-1.025**	.006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 평균횟수	.593***	.003	.601***	.003	.601***	.003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996**	.007	-.994**	.007	-.993**	.007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지지	.026**	.000	.023**	.000	1.507**	.000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46	.001	-.043	.001	-.043	.001
	자녀와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18	.000	-.018	.000	-.018	.000
독립 변수	성별			-1.414*	.014	-1.192*	.027
	경제수준			3.363***	.016	3.498***	.021
	성별*경제수준					-.285*	.030
	(상수항)	28.049***	.028	22.930***	.038	22.917***	.038
	사례수(N)	2254					
	R Square	.328		.333		.334	
	F값	74.170		67.033		63.281	

\*  $p < .05$ , \*\*  $p < .01$ , \*\*\*  $p < .001$ , <sup>A</sup> = 비표준화 회귀계수

여기서, 성별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B = -.285$ 으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수준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도표를 그려 <그림 4-1>에 제시하였다.



<그림 4-1> 성별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

<그림 4-1>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일 때보다 일반층일 경우에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일 때보다 일반층일 경우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낮은 반면, 일반층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존모델에서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가 경제수준이라는 독립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첫 번째 단계의 경우 32.8%의 설명력을 갖는다( $R^2=.328$ ,  $F=74.069$ ).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을 투입한 두 번

째 단계의 경우 33.3%의 설명력을 갖는다( $R^2=.333$ ,  $F=70.803$ ). 이는 첫 번째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0.5% 증가했으며,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이라는 독립변수의 투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가 투입된 상태에서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것으로, 이 단계의 설명력은 33.4%이다( $R^2=.334$ ,  $F=66.717$ ). 이는 두 번째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0.1% 증가했으며,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정리하자면 [표 4-3]와 같다.

[표 4-3]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분석 결과

변수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단계1		단계2		단계3	
		B <sup>A</sup>	S.E.	B <sup>A</sup>	S.E.	B <sup>A</sup>	S.E.
통제변수	신체적 건강상태	1.772***	.028	1.695***	.008	1.695***	.008
	인지적 건강상태	.906*	.008	.698*	.014	.698*	.014
	자녀와의 동거여부	1.743	.013	1.162	.014	1.162	.013
	연령집단	-1.642*	.016	-1.479*	.016	-1.479*	.016
	성별	-1.810*	.014	-1.407*	.014	-1.407*	.014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487***	.000	.482***	.000	.482***	.000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725***	.005	.719***	.005	.719***	.005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121	.008	-.162	.008	-.162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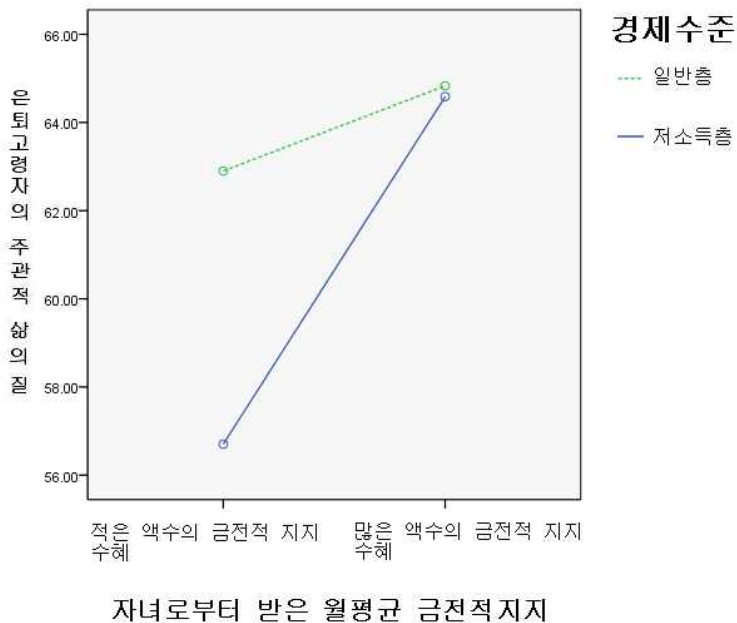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271**	.001	-.267**	.001	-.267**	.001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1.091**	.006	-1.025**	.006	-1.025**	.006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583***	.003	.601***	.003	.601***	.003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981**	.007	-.994**	.007	-.994**	.007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지	.023**	.000	.023**	.000	1.517**	.000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41	.001	-.043	.001	-.043	.001
	자녀와 10세 미 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15	.000	-.018	.000	-.018	.000
독 립 변 수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지 지			.024**	.000	.061**	.000
	경제수준			3.380***	.016	3.907***	.016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지 지 *경제수준					-.042*	.001
	(상수항)	28.854***	.028	22.930***	.038	22.754***	.038
	사례 수(N)	2254					
	R Square	.328		.333		.334	
	F값	74.069		70.803		66.717	

\* p<.05, \*\* p<.01, \*\*\* p<.001, <sup>A</sup> = 비표준화 회귀계수

여기서,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B=-.038$ 으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수준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도표를 그려 <그림 4-2>에 제시하였다.



<그림 4-2>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

<그림 4-2>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일때보다 일반층일 경우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적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보다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에 저소득층과 일반층 모두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층에 있어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액수가 중요하기는 하나 저소득층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존모델에서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이라는 독립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첫 번째 단계의 경우 32.8%의 설명력을 갖는다( $R^2=.328$ ,  $F=74.069$ ).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을 투입한 두 번째 단계의 경우 33.3%의 설명력을 갖는다( $R^2=.333$ ,  $F=67.033$ ). 이는 첫 번째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0.5% 증가했으며,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이라는 독립변수의 투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가 투입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것으로, 이 단계의 설명력은 33.4%이다( $R^2=.334$ ,  $F=63.405$ ). 이는 두 번째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0.1% 증가했으며,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정리하자면 [표 4-4]와 같다.

[표 4-4]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분석 결과

변수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단계1		단계2		단계3	
		B <sup>A</sup>	S.E.	B <sup>A</sup>	S.E.	B <sup>A</sup>	S.E.
통제 변수	신체적 건강상태	1.813***	.028	1.695***	.008	1.694***	.008
	인지적 건강상태	.961*	.008	.698*	.014	.699*	.014
	자녀와의 동거여부	1.910	.013	1.162	.014	1.153	.013
	연령집단	-1.882*	.016	-1.479*	.016	-1.475*	.016
	성별	-1.688*	.014	-1.407*	.014	-1.406*	.014
	자녀로부터 받은 금전적지지	.025***	.000	.025***	.000	.025	.000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486***	.000	.482***	.000	.482***	.000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	.734***	.005	.719***	.005	.714***	.005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대면만남빈도	-.164	.008	-.162	.008	-.159	.008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266**	.001	-.267**	.001	-.266**	.001
	자녀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1.077**	.006	-1.025**	.006	-1.023**	.006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572***	.003	.601***	.003	.604***	.003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979**	.007	-.994**	.007	-.994**	.007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043	.001	-.043	.001	-.042	.001
	자녀와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020	.000	-.018	.000	-.018	.000

	돌봄을 제공한 주당평균시간						
독 립 변 수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지지			1.152**	.000	-.045	.000
	경제수준			3.147***	.016	3.400***	.016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지지*경제 수준					-1.339	.001
	(상수항)	28.854***	.028	22.930***	.038	23.061***	.038
	사례수(N)	2254					
	R Square	.328		.333		.334	
	F값	74.069		67.033		63.405	

\*  $p < .05$ , \*\*  $p < .01$ , \*\*\*  $p < .001$ , <sup>A</sup> = 비표준화 회귀계수

여기서,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의 경우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제5장. 결 론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 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 및 가족내의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 돌봄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친구들의 심리사회적 지지, 간병인의 돌봄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을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 성별, 연령집단,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라는 변수들을 경제수준과의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해서 저소득층과 중류층 이상의 일반수준에 따라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 및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주효과 연구모형의 경우, 첫 단계에서 통제변수들 중 신체적 건강상태, 인지적 건강상태는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및 불안감이 생겨서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결과(Zank & B. Leipold, 2001)와도 일치하며, 신체적 통증은 쉽게 인식이 가능하고 일상적 생활에 불편을 주고 심리

적 안녕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적을수록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Schneidera et al, 2004)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독립변수들은 대부분 세 번째 단계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새로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는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라는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자녀와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병행하는 것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있어서 자신이 “도움을 주었다(Giving Help)”는 점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는 Mutran and Reitzes(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세 번째 단계에서 투입되었던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이라는 독립변수와 자녀와 10세 미만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주당 평균시간이라는 독립변수의 경우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인지적 건강상태는 은퇴고령자가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를 수혜 받음을 뜻하는 변수들이 투입된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투입된 이후부터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회귀값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지가 정기적으로 존재할 경우 노인의 인지기능하락으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완충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년기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삶의 질이 인지적 기능하락의 영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라는 Muramatsu, Yin and Hedeker(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성별, 연령집단, 경제수준,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첫 번째 자녀의 주당평균 연락빈도,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 간병인에게 돌봄제공을 받은 주당평균시간,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절효과 연구모형의 경우,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 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를 상호작용항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 및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일 때보다 일반층일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의 수준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다고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 저소득층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낮은 반면, 일반층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녀로부터 적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보다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에 저소득층과 일반층 모두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층에 있어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액수가 중요하기는 하나 저소득층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보다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이나는 게 아니며 저소득층과 일반층 모두 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제시되었다.



## 2.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인 상호제공적 가족지지와 비가족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효과, 즉 저소득층과 일반 경제수준에 따라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관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각 변수별로 살펴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집단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를 분석한 결과, 연소노인인 경우가 중고령노인인 경우보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소노인 집단이 중고령노인 집단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편이며 일상생활에서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 훨씬 더 낮고, 빈곤을 경험하는 수준도 더 적은 편(Neugarten, 1974)이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연소노인집단이 중고령노인집단보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연령집단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에 경제수준이 주는 조절효과를 분석했을 때,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연소노인집단이 중고령노인집단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는 연령집단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둘째,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를 분석한 결과, 여성 은퇴고령자가 남성 은퇴고령자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노인들은 은퇴를 한 뒤 소득의 상실과 사회적인 지위의 상실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 증가 및 은퇴 이후에도 가계부양자로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때문에 주관적 삶의 질이 하락한 반면, 여성 은퇴고령자들은 가계부양자

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질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Peterson(1995)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성별이 은퇴고령자에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에 경제수준이 주는 조절효과를 분석했을 때, 저소득층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낮은 반면 일반층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남성 노인들은 은퇴를 한 뒤 소득의 상실과 사회적인 지위의 상실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 증가 및 은퇴 이후에도 가계부양자로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주관적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낮다 (Peterson, 1995)는 성별화된 연령주의 이론의 주장이 저소득층에서만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일 경우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1-2]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자녀에게 제공받는 월평균 금전적 지지는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에게서 제공받는 월평균 금전적 지지 액수가 많을수록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녀에게서 제공받는 월평균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에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에 경제수준이 주는 조절효과를 분석해보면, 적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보다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에 저소득층과 일반층 모두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층에 있어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액수가 중요하기는 하나 저소득층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게서 제공받는 월평균 금전적 지지 액수가 많을수록 저소득층 은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수준과 같은 삶의 객관적 조건이 매우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본 선행연구(Diener et al, 1992; 한석태, 2008)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경제수준이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도 자녀의 금전적 지지는 여전히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Fritzell&Lennartsson, 2005; 조윤주, 2007)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수준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넷째,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유무의 경우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Mutran and Reitzes, 1984)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한국사회 안에 있는 4가지 노년기 부모-성인자녀간 상호지원유형(부모수혜형, 자녀수혜형, 상호지원형, 부모-성인자녀간 지원이 적거나 없는 유형) 중 노년기 부모와 성인자녀간 상호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가구에 속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이 높으며, 금전적 지지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제공받는 금전적 지지가 포함된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존재하는 경우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정진경·김고은, 2012)와도 유사하다. 이는 곧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는 일방적인 가족내 지지보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된 [연구가설 1-4]를 지지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지유무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주는 영향에 경제수준이 주는 조절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행위에 따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저소득층과 일반층이라는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은 조절효

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4]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은퇴 후 삶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선행연구결과(Laurer, Laurer and Kerr, 1995, Diener et al, 2000)와 일치한다.

여섯째, 첫번째 자녀와의 주당평균 연락빈도가 증가할수록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Merz et al(2009)에 의해 밝혀진 적이 있는데, Merz et al(2009)은 자녀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서 충고를 하면서 자녀에게 관심을 보인 노년기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주관적 삶의 질의 수준을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의 경우 많이 만날수록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Zhang and Li, 2011; 이은주, 2007)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배우자에게 돌봄제공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거나 간병인으로부터 돌봄제공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낮아지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Raschick and Ingersoll-Dayton, 2004; Roberto and Jarrott, 2008; Stoller, 1983)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Raschick and Ingersoll-Dayton (2004)은 노년기 배우자가 돌봄제공을 해주는 경우 돌봄제공을 받는 노인은 이로부터 “만족감, 고마움”이라는 긍정적 감정과 “심리적 갈등, 수치스러움,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은퇴고령자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배우자에게 제공해주기보다는 주로 수혜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의 돌봄제공을 일방적으로 수혜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경험됨으로 인하여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또,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고령화패널의

경우 돌봄제공 중 머리감기나 부축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돌봄제공을 받는 것에 대한 자존감 하락이나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의 지지여부를 표로 정리해본다면 [표 5]와 같다.

[표 5] 분석결과에 따른 가설검정 요약

연구가설	지지여부
[연구가설 1-1] 연소노인집단이 중고령노인집단보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지지
[연구가설 1-2]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부분적 지지
[연구가설 1-3]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인 경우보다 일반 노인인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지지
[연구가설 1-4]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는 일방적인 가족내 지지보다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지지
[연구가설 2-1] 연령집단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기각
[연구가설 2-2] 성별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지지
[연구가설 2-3]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수준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지지
[연구가설 2-4]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기각

## 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배우자와 자녀의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 돌봄제공) 및 가족외 지지(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 간병인의 돌봄제공)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론적 함의

첫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은퇴고령자가 되면, 은퇴전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은 은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으며, 이 결과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의 가정에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는 가족외지지 중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 평균횟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 역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와 일반 은퇴고령자 모두 주관적 삶의 질에 금전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 못지않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할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서도 주관적 삶의 질이 상승한다는 결과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은퇴고령자는 배우자나 간병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돌봄제공을 받는 경우에 주관적 삶의 질이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

으며, 은퇴고령자도 가족내에서 일방적으로 돌봄제공을 받는 것 자체에 더욱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다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성별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수준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저소득층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낮은 반면 일반층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별화된 연령주의 이론이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에게서만 지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경제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보다 일반층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별 주관적 삶의 질 이론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 2. 정책적 함의

첫째, 은퇴고령자에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은퇴 후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고 조화롭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 은퇴고령자를 위한 부부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관,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은퇴고령자에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상당히 장기적 기간을 거쳐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혼형성기부터 부부관계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부교육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전달체계망을 구축하는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둘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는 금전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 못지않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현재 논의 중인 기초노령연금문제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즉, 은퇴고령자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더욱이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공근로나, 학교돌보미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돌봄제공은 은퇴고령자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이나, 실제로 은퇴고령자의 자존심을 건드려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돌봄제공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농촌에서 고독사예방을 위하여 ‘공동거주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려는 정책을 2014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이처럼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자립홈 형태의 주거공동시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Pastalan, 1999)으로 생각된다.

넷째, 은퇴고령자에게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 평균횟수는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고령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마다 적정수준의 놀이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우리 사회에서 은퇴고령자, 특히 저소득층 은퇴고령자가 친구들과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여자가 남자보다, 연소노인 집단이 중고령 노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자와 중고령노인에 속하는 은퇴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는 첫 번째 자녀의 주당 연락빈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는 것보다 연락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 결과는 은퇴고령자 자녀에게 은퇴 후 부모와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고려된다. 즉, 성인자녀들은 은퇴고령자 부모에게 방문 또는 대면 만남을 통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성인자녀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접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교적 부담이 적은 잦은 전화연락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은퇴고령자와 성인자녀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곱째,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부양문제는 가족내에서 자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으나, 한 가정 내에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은퇴고령자의 심리적 복지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다. 따라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를 통해서 한 가정 내에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활동은 은퇴고령자와 자녀의 상호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은퇴고령자가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퇴고령자의 분거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자료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즉, 가족내 상호제공적 지지 중 심리사회적 지지는 제공받는 편과 제공하는 편을 구분할 수 없었으며, 자녀 및 친구와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면접촉이나 연락횟수 등만 포함되어 있을 뿐 자녀 및 친구와의 친밀감 및 유대감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리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족외 지지의 경우에도 상호제공적인 지지는 측정하지 못했는데, 이는 고령화연구패널 3차자료가 노인이 비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혜받는 것을 중심으로 변수가 수록되어 있었을 뿐 노인이 지역사회나 비가족구성원들에게 상호제공적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활동에 관한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은퇴고령자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 중 돌봄제공은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빈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에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에 돌봄제공에 대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식생활(반찬만들기, 간식제공 등)이나 주생활(청소, 빨래, 집수리 등)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유배우 은퇴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무배우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유배우 은퇴고령자와는 차이가 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각된 생활스트레스나 자아존중감이라는 변수가 없어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에 의해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앞으로 무배우 노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가족환경적 배경을 지닌 은퇴고령자들을 대

상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고 밝혀냄으로써, 은퇴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본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 연구는 신체적, 인지적 건강상태가 모두 양호한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변인 및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족내 지지를 상호제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고, 가족내 지지의 상호제공적 제공주체를 배우자와 자녀로 구분하고 가족내 지지를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와 돌봄제공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등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및 연령집단과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련된 주요변인들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 참고문헌

- 강현민(2009). 무배우 여성노인의 우울수준에 관한 일 고찰 : 가족 지지의 지지의 주효과와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현민(2004). 제주노인의 사회적지지 유형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4(2). 145~162.
- 공선희(2008). 한국 노인의 돌봄 자원과 돌봄 기대 : 생애구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진·정여진(2006).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Vol.34. 31~54.
- 김귀분·최재은·석소현(2007).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사기 및 삶의 질과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Vol.19(4), 517~526.
- 김영근(2008). 노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16(3) 99~110.
- 김순안(2012).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농촌노인의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지도학회. Vol.19(3), 581~616.
- 김윤정(2008). 노년기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한국학술정보(주).
- 김정연·이석구·이성국(2010). 노인에서 건강형태, 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한국노년학. Vol.30(2). 471~484.
- 김정엽(2010). 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복지행정논총. Vol.20(2). 29~62
- 김진(2008). 한국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근(2006). u-can 회귀분석. 인간과 복지.
- 남궁명희(2009).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기혼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0권 3호. 49~79.
- 노병일·오영선(2005). 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지역협력기

초연구(5). 대전대학교지역협력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촌 주거환경개선, 「주민참여형 통합개발 방식」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보도자료.

민기채·이정화(2008).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28(3). 515~533.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Vol.3(1). 103~140.

박기남(2005). 성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 여성연구. Vol(-). 5~34.

박미려(2007). 은퇴노인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복(2004). 노인의 삶의 질 연구를 위한 통합적 접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17-233.

박은연(2002). 따로 사는 노인의 기혼장남에 대한 역할기대 및 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창제(2013). 은퇴결정형태와 노후준비가 은퇴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Vol.59(1). 115-138.

백경흔(2009). 손자녀 돌봄 경험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신체 및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Vol.10(2). 87~112.

서연희(2011). 동거여부와 가족지지와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현복(2010).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및 건강상태 만족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경혜(2013). 노인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영희(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Vol.15(2). 97~116.

유성호(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

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Vol.17(2). 37~50.

윤순덕·한경혜(2000). 떠난 장남, 남은 장남 :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농촌노인의 거주유형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Vol.34(F). 649~669.

이명진(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노인에 대한 수발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 비공식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란(2011). 노인의 건강성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 가족지지가 매개효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주(2007).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도시 노인을 중심으로. 경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경섭(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Vol.15. 173~202.

장수미(2008). 가족유형과 가족지지가 노인 당뇨병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22(4). 35~66.

장숙희(1991). 입원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상태불안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정은(2011). 노인의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관련요인.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은영·최연희(2010). 취약계층 남성노인의 연령별 건강관련 삶의 질과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Vol.40(3). 400~410.

정재필(2012).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에 따른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 석사학위논문.

정진경·김고은(2012). 노년기 부모-성인자녀간 지원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32(3). 895-912.

조윤주(2007). 생산적 활동과 이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여성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Vol.30(2), 23~44.

최아름·정홍주(2013).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Vol.33(1). 29~57.

최은영·김지영·김혜숙(2003).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생활만족도 및 가족지지와의 관계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Vol.5(1), 7~16.

- 최희경(2011). 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 : 감정노동으로서의 일반적 특징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9호.
- 통계청(2010). 2010 고령자통계.
- 한경혜(1994). 농촌노인의 사적 부조.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994. 28~35.
- 한경혜·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Vol.12(2). 55~80.
- 한국고용정보원(2010). 2010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3차 기본조사 설문지.
- 한석태(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회. Vol.42(3). 441-461
- 한형수(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19(2). 113-142.
- 홍순혜(1999).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 : 가족원 유형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39. 322-349.
- 황미영(1999).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 19(2). 27~46.
- 황영원(2006).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bott L. Ferris(2006).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the quality of life.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1. 117~123.
- Adel Bergeland and Marit Kirkevoid(2005). Reside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Thriving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28, 365-375.
- Aggie T.G Paulus, Arno van Raak, Femke Keijzer(2004). Informal and formal caregivers' involvement in nursing home care activities: impact of integrated care. issues and innovation in nursing practice. Vol.19. 354-366.



A. J. Campbell, J. Reinken, B. C. Allan, G. S. Martinez(1981). Falls in old age: A study of frequency and related clinical factors. *Age and Ageing*. Vol.10. 264–270.

Alexis J. Walker, Clara C. Pratt, and Nancy Chun Oppy(1992). Perceived Reciprocity ins Family Caregiving. *Famliy Relation*. Vol.41. 82–85

Anne scott and G. clare wenger(1995). gender and social support networks in later life in *connecting gender and ageing: A sociological Approach*. Buckingham;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c1995.

Anthea Tinker(1981). *Elderly people in modern Society*. Longman Publishing. New work.

Ariela Lowenstein, Ruth Katz, Nurit Gur–Yasih(2007). Reciprocity in Parent–Child Exchan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3(4). 865–883.

Baoshan Zhang and Joan Li(2011). Gender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elderly adults: The roles of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Aging and Mental Health*. Vol.15(7). 844–854.

Bernice L. Neugarten(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87–198.

B. Jan McCulloch(1990). The Relationship of intergenerational reciprocity of aid to the morale of older parents: Equity and exchange theory comparisons. *Journal of Gerontology*, Vol.45(4). 150–155.

Bonita F. Bowers and Barbara J. Myers(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Vol.48. 303–311.

Bowers, B, J(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taffing and Quali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Nursing Home Care Quality*. Vol.14(4). 55-64

Candida C. Peterson(1995). Husbands and wives perceptions of marital fairnes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in *The Ties of Later Life*. John Hendricks. Baywood Pub.

Cardia, E & Ng, S. (2003). Intergenerational time transfers and childcar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Vol.6(2). 431-454.

Carolyn A. Liebler·Gary D. Sandefur(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Exchange of Social Support with Friends, Neighbors, and Coworkers at Midlife. CDE Working paper Vol.12

Carstensen, L.L., Isaacowitz, D.M., and Charles, S.T(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Vol.54, 165-181.

Coo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 Med* 38: 300-14.

David F. Cella(1994). Quality of Life: Concepts and defintion.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Vol.9(3). 186~192.

Dane. B. O.(1990). Services to Families of the Elderly in monk, A(eds). *Handbook of Gerontological services*(2th edition). Colombia Univ. Press.

Edwin. N. Wilmsem(1972). Social exchange and interaction. *Museum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ichigan*. No.46

Ed Diener, Carol L. Gohm, Eunkook Suh and Shigehiro Oishi(2000). Similarity of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1. 419-436.

Ed Diener and D. R. Rahtz(2000).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rach*. Kluwer Academic Publishers. 31-63.

Ed diener, ed sandvik, Larry seidlitz and marissa diener(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28(1). 195~223.

Ed diener, EM suh, RE locas, HL. smit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5(2). 276-302.

Ed diener&Eunkook suh(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0. 189-216.

Ed diener, Robert A. Emmons, Randy J. Lauren and Sharon Griffin(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1). 71-75.

Ed diener and Robert Biswas-diener(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57. 119-169.

Elanie M.brody and Clarie B. Schoonover(1986). Patterns of parent care When adult daughters work and when they do not. *The gerontologist*. Vol.26(4), 372-381.

Eleanor Palo Stoller(1983). Parental Caregiving by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51-858.

Eleanor Palo Stoller and Lorna L. Earl(1983). Help with Activities of everyday life: sources of support for the non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gerontologist*. Vol.23(1), 64-70.

Eleanor Palo Stoller and Stephen J. Cutler(1992). The Impact of Gender on Configurations of care among Married Elderly Couples. *research on aging*. Vol.14(3). 313-330.

Elizabeth Mutran and Donald C. Reitzes(1984). Intergener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Well-Being among the Elderly: A Convergence of Exchange and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9(1).

117–130.

Erik. H. Erikson(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 a review. New York : Norton.

Ethel Shanas(1979). The Family as a Social support system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Vol.19(2). 169–174.

Frieder R. Lang(2001). Regul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in Later Adulthood.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Vol56.(6). 321–326.

Fritzell, J & Lennartsson. C(2005). Financial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in sweden. Ageing & society. Vol.25(6). 397–414

Fritz Strack, Michael Argyle, Norbert Schwarz(1991).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ergamon Press

Gary R. Lee and Masako Ishii-kuntz(1988). Social Interaction, Loneliness,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research on aging. Vol. 9(4). 459~482.

Gary T, Reker(2001). Prospective predictions of successful aging in community-residing and institutionalized canadian elderly. Ageing International, Vol.27(1), 42–64

Georg E. matt and alfred dean(1993).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elderly persons: Moderator effect of ag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4(3). 187–200.

George R. Parkerson JR, J. Lloyd Michener, Lawerence R, Wu, James N, Finch, Lawerence H, Munlbaier, Katheryn Magruder-habib, Joseph W, Kertezm Nancy clapp-channing, Diana S. Morrow, Anthony L, T. Chen, Elizabeth Jokerst(1988). Associations among family support, Family stress, and personal functional health status. Journal of Clinical. Vol.42(3), 217–229.

Gloria J. Wentowski(1981). Reciprocity and the coping strategies of older people: Cultural Dimensions of network

building. *The gerontologist*. Vol.21(6). 600–609.

Greg Arling(1987). Strain, Social Support, and Distress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Vol.42(1). 107–113.

Gudrun Schneidera, Georg Driescha, Andreas Kruseb, Michael Wachterb, Hans–Georg Nehenc, Gereon Heuft(2004). What influences self–perception of health in the elderly? The role of objective health condi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sense of coherence.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39(3). 227–237.

Ik ki kim and Cheong–seok kim(2003). patterns of family support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63, 437–454.

Jaber F. Gubrium(1991).*The Mosaic of Care: Frail Elderly and Their Families in the Real World*.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James J. Dowd(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Vol. 30(5), 584–594.

Jeanette henderson and liz forbat(2002). Relationship–based social policy: personal and policy constructions of 'care'. *Critical Social policy*. Vol.22(1), 669–687.

Jersey Liang(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100–108.

Joan Kaden and Susan A. McDaniel(1990). Caregiving and Care–Receiving: A double Blind for Women in Canada's Aging Society.

Joan M. Patterson and Richard H. Needle(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2(4), 855–871

John F. Finch, Morris A. Okun, Manuel Barrera. Jr., Alex J. Zautra, John W. Reich(1989).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Ties

among older Adults: Measurement Models and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 be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7(5). 585~605.

John R. Weeks and Jose B. Cuellar(1981). The Role of family members in the Helping network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Vol.21(4). 388-394.

Josephine C. Jacobs, Meredith B. Lilly, Carita Ng, Peter C. Coyte(2013). The fiscal impact of informal caregiving to home care recipients in Canada: How the intensity of care influences costs and benefits to govern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Vol.81. 102-109.

Joseph R. Gaugler, Steven H. Zarit, and Leonard I. Pearlin(1999). Caregiving and Institutionalization: Perceptions of Family Conflict and Socioemotional Suppor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49(1), 1~25.

Judith C. Barker(2002). Neighbors, Friends, and other nonkin caregivers of community-living dependents elders. *The journal of Gerontology*. Vol.57(3), 158-167.

Karen A. Roberto and Shannon E. Jarrott(2008).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A Life Span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Vol.57 100-111.

Karen Klein Ikkink and Theo van Tilburg(1999). Perceived Instrumental Support Ex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Normative and Structural Explan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1, 831-844.

Kenneth A. Couch, Mary C, Daly, and Douglas A. Wolf(1999). Time? Money? Both?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older parents. *Demography*. Vol.36(2). 219-232.

Laura L. Carstensen(1995). Evidence for a Life-Span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4(5). 151–156

Laura L. Carstensen, Helene H. Fung, and Susan T. Charles(1992).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Second Half of Life. *Motivation and Emotion*. Vol.27(2). 103–123.

Laurence G. Branch and Alan M. Jette(1983). Elders' use of informal long-term care assistance. *Vol.23(1)*. 51–56

Lauren C. Vanderwerker and holly G. prigerson(2003). Social support and technological connectness as protective factors in bereavement. *Journal of Loss and Truma*. Vol.9. 45–57.

Leon A. Pastalan(1999). *Making Aging in Place work*. The Haworth Press. New work.

Linda S. Noelker and David M. Bass(1998). Home Care for Elderly Persons: Linkag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Vol.44(2). S63–S70.

Lilian E. Troll, Sheila J. Miller and Robert C. Atchley(1979) *Families in Later life*. Belmont : Wadsworth, c1979.

Margaret Plate Jendrek(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 on Lifes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5. 609–621.

\_\_\_\_\_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Marjorie H. Cantor(1975). Life Space and the Social support system of the inner city elderly of new york. *The gerontologist*. Vol.15

\_\_\_\_\_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Vol.1(4). 434–463.

\_\_\_\_\_ (1983). Strain Among Caregivers: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Vol.23(6). 597–603.

\_\_\_\_\_ (1989). Social Care: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System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Vol.503. 99–112.

\_\_\_\_\_ (1991). Family and Community: Changing Roles in an Aging Society. *The gerontologist*. Vol. 31(3). 337–346.

Mark R. Rosenzweig and Kenneth I. Wolpin.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the Life–Cycle Incomes of Young Men and Their Parents: Human Capital Investment, Coresidence,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Transfer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1(1). 84–121.

Melvyn. C. Goldstein and Yachun Ku (1993). Income and family support among rural elderly in zhejiang province, China. *Journal of Corss–Cultural Gerontology*. Vol.8, 197–223.

Michael McBride (2001).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45. 251–278.

M. Jonler, T. Moon, W. Brannan, N. Stone, D. Heisey, R.C. Bruskewitz (1995). The effect of age, ethnicity and geographical location on impotence and quality of life. *British Joournal of Urology*. Vol(75) 651–655.

Morag Farquhar (1995). Elderly people's definitions of quality of life. *soc.sci Med*. Vol.41(10). 1439–1446.

Morris A. Okun, William A. Stock, Marilyn J. Haring, Robert A. Witter (1984).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19(2), 111 – 132

M. Raschick and Ingersoll–Dayton (2004). The Costs and Rewards of Caregiving Among Aging Spouses and Adult



Children. *Family Relations*. Vol.53(3). 317–325.

Neal Krause(2006). *Social Relationships in Late Life*. Handbook aging and Social Science. Sixth edition. Academic press.

Neena L. Chappell(1985). Social Support and the Receipt of Home care services.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Vol.25(1), 47–54

\_\_\_\_\_ (1989). Health and helping among the elderly: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1(1). 102–120.

Neena Chappell and Audrey Blandford(1991). Informal and Formal Care: Exploring the Complementarity. *Ageing and Society*. Volume 11(3), 299–317

N. Muramatsu, H Yin and D Hedeker(2010). Functional decline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the elderly: Does living in a state supportive of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make a differ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Vol.70(7). 1050–1058

R. B. Nes, N. Czajkowski, E. Roysamb, T.Reichborn–Kjennerud and K. Tambs(2008). Well–being and ill–being: shared enviroments, shared gen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3(4). 253–265.

Rebecca G. Adams and Rosemary Blieszner(1995). Aging well with friends and famil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39.(2). 209–225.

Robert Laurer, Jeanette C. Laurer and Sarah T.kerr(1995). *The Long–term marriage in The Ties of Later Life*. John Hendricks. Baywood Pub.

Oded Stark and Ita Falk(1998). Transfers, Empathy Formation, and reverse Transfe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8(2). 271–276

Pinquart, Martin and Sörensen, Silvia(2000). Influence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compet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Vol 15(2), 187–224.

Reed Larson(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Vol.22(1). 109–125.

Richard A. Easterlin, Laura Angelescu McVey, Malgorzata Switek, Onnicha Sawangfa and Jacqueline Smith zweig(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Economic sciences*. Vol.107(52). 22463–22468.

Robert. M. Biswas-Diener(2008). Material W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edited by Michael Eid, Randy J. Larsen. New York : Guilford Press.

Robert. N. Deleaire(1994). Life Satisfaction: Morale, Well-Being, and Life Expectations in *The Inner-city elderly*. Garland studies on the Elderly in america. Garland publishing.

Sara Arber, Kate Davidson and Jay ginn(2007). Gender and ageing.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c2003.

Shuzhuo Li, Xusong Yang, Xiaoyi Jin, Xi'an Shaanxi and Marcus W. Feldman(2006). The Effects of Rural-Urban Migration on Intergenerational Financial Transfer in China: A Gender-Based Perspective.

Suzzne C. Ho, Alfred Chan, Jean Woo, Portia Chong, and Aprille Sham(2009). Impact of caregiving on health and quality of Life : A comparative Population based study of Elderly persons and non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Vol.64(8)

Sydney H. Croog, Alberta lipson and sol levine(1972). Help patterns in severe illness: The roles of kin network, non-family resources and Institu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4(1). 32–41.

S. Zank & B. Leipold(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everity of dementia and subjective well-being. *Aging & Mental Health*. Vol.5(2). 191–196.

Todd B. Kashdan, Robert Biswas-Diener and Laura A.King(2008). Reconsidering happiness: the cost of distinguishing between hedonics and eudaimonia.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3(4). 219–233.

Thomas R. Lynch, tamar Meldelson, Clive J. Robins, K. Ranga, R. Krishnan, Linda K George, Courtney S. Johnson, Dan G. Blazer(1999).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depressed elderly, middle-aged, and young-adult sample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55(4), 159–170.

Thompson, Mark G and Heller, Kenneth(1990). Facts of support related to well-being: Quantitative social isolation and perceived family support in a sample of elderly women. *Psychology and Aging*, Vol.5(4), 535–544.

Toni C. Antonucci and Hiroko Akiyama(1987). An Examination of sex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men and women, *Sex Roles*. Vol. 17(6). 737–749.

Truong SA, Bui TC, Goodkind D, Knodel J(1997). Living arrangements, patrilineality and sources of support among elderly Vietnamese. *Asia Pac Popul J*. Vol.12(4), 69–88.

Ulf Jakobsson&Ingalill rahm hallberg(2002). Pain an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people with rheumatiod arthritis and/or osteoarthritis: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11. 430–443.

Victor G. cicirelli(1990). Family support in relation to health problems of the elderly. In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Timothy H. Brubaker. Sage Publications

William J. Strawbridge, Margaret I. Wallhagen, Sarah J. Shema and George A. Kaplan(1997). New burdens or more of the same? Comparing grandparent, spouse, and adult-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Vol.37(4). 505–520.

Ylva Hellstrom and I.R. Hallberg(2001). Perspectives of elderly people receiving home help on health, care and quality of life.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9(2). 61–71.

## Abstract

# The Effect of reciprocal providing family support and non-family support on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Woo jin, J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people is extremely meaningful because old age is the finishing stage of human life. In the current period, elderly people will live with their neighbors and family for a greater period of time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in the context of "lengthened relationship life expectancy due to life extension" (Han Kyung-Hae and Hong Jin-Kuk, 2000). Therefore, improv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is crucial work for the elderly welfare policy of the Korean Republic. Thus, in the context of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rget retired elderly who are both physically and cognitively well,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ender, age group, and reciprocal providing family support and non-family suppor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is group of retired elderly.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family suppor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family support was divided

into the support given by children and the support provided by the spouse. This study measured “reciprocal providing family support” by measuring financial support, psychosocial support, and informal caregiving, which is given by spouse and children. This study defined “non-family support” as psychosocial support given by friends and care given by nursing professionals. The sample for this study was gathered from the third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hich was collected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To analyze the data, multiple regression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first research model,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second research model.

Th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is written below. First,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variables such as sharing the same house with children, cognitive health, and physical health were selected to control variables, and gender, age group, reciprocal providing family support and non-family support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execute the multiple regression.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people increased when the retired elderly were women, were young and old, were receiving more monthly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had greater satisfaction in their relationships with spouses, held frequent meetings with friends, and provided financial support for children. In contrast,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people decreased when the people received more frequent informal care giving from spouses or children, and also more frequently received care giving from external nursing professionals.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s of

economic status on the influencing relationships of gender, age group, and reciprocal financial support with children in relation to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by the method of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the interaction term of age group and economic status and interaction term of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children and economic status were found to not have an effect on subjective th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In contrast, the interaction term of gender and economic status and the interaction term of received monthly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and economic statu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at  $p < 0.05$ . This means that the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in men is higher than in women when economic status is average rather than low-income. Additionally, in case of low-income economic status, men's subjective well-being is lower than women's, but in case of average economic status, men's subjective well-being is higher than women's. However, receiving a lot of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makes higher subjective well-being in both low-income and average income rather than receiving a less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This means that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is considerably important. However, receiving a lot of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who are of a low-income economic status can make subjective well-being increase, but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subjective well-being retired elderly of average economic status as compared to low-income retired elderly.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increased when the retired elderly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children, regardless of economic status.

Based on these results, seven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presented:

First, the satisfaction brought by relationships with spous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So, in order to make and maintain a harmonious marital relationship in later life, “married couples counseling” for retired elderly should be provided by community centers and local welfare houses for the aged.

Seco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has as positive an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lower income retired elderly as receiving financial support. So, in order to improv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low-income retired elderly, it is helpful to provide them a chance to participate in social service, such as public labor or car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one-sided informal care giving decreases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 policy of self-reliance for the elderly and the elderly should be given living assistance without financial burden.

Fourth, weekly meetings with friends are crucial for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tired elderly. So, every community should make a communal area for cultural activities or pastimes in order to give retired elderly a space in which to convene with friends.

Fifth, it has been determined that women have greater subjective well-being than men, and the young-old elderly report higher well-being than the old-old elderly. So, thoughtful consideration for men and the old-old retired elderly is needed. Also, methods for improv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tired elderly should be prepared by gender and age



group separately.

Sixth,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frequency with firstborn children positively affects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This means not only that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children affects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also, such as in telephone communication, is less of a burden than face-to-face communication. So, it is desirable to publicize the fact that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people.

Seventh, sharing living quarters with children did not affect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regardless of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retired elderly. In Korea, the duty of supporting elderly should be maintained by children, and it was recognized as a social conventional.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is kind of social convention is not be helpful t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So, the act of supporting the elderly by adult children who live in the same house should be considered with mutual agreement of the elderly and adult children. If the retired elderly person does not want to live in the same house with adult children, then supporting plans for a separated household for the retired elderly should be drawn with institutional and political methods.

**Keywords : reciprocal providing family support, retired elderly, subjective well-being, financial support, psychosocial support, caregiving.**

**Student Number = 2012-20128**